

# Style

조선일보

JUNE 2022 vol.238



CLASH  
DE  
*Cartier*





MARGOT ROBB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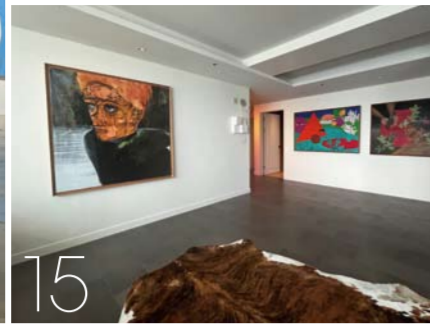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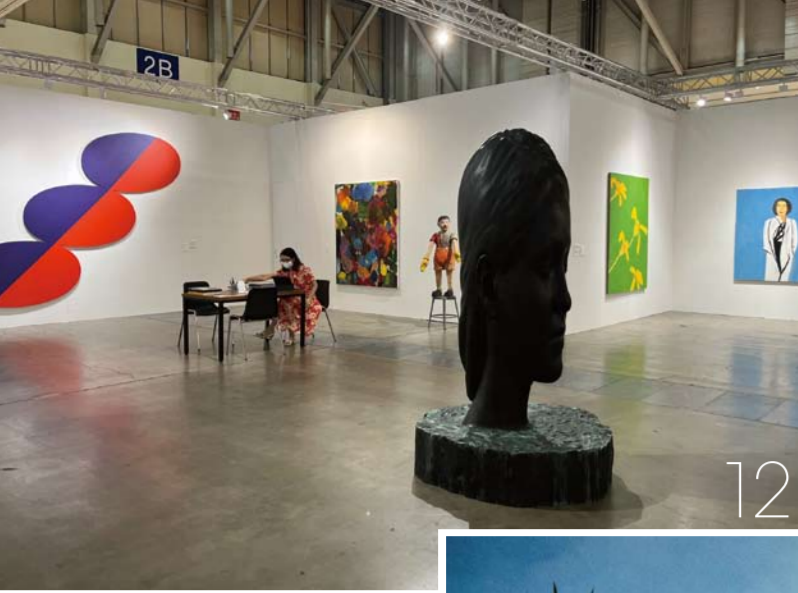
CHANEL.COM CUSTOMER CARE CENTER 080-805-9628

# CHANEL

## J12

IT'S ALL ABOUT SECONDS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  
견고한 세라믹 워치. 스위스 메이드. 보증기간 5년.



12 15



이런 시즌, 까르띠에는 클래식 드 까르띠에의 철학을 한층 강조한 새로운 컬렉션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이중성을 극대화했고, 핑크 스타일의 미학을 반영하는 동시에 워트를 강조했으며 텍스처의 대비를 활용해 리듬감과 강렬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왼쪽은 클래식 드 까르띠에 핑크 골드 미디엄 모델 링, 오른쪽은 클래식 드 까르띠에 라지 모델 링으로 핑크 골드와 옅은색의 다이아몬드 포 포인트를 했다. 문의 1566-7277



40



10

- 08 **SELECTION FOR HIM** 섹트르페에서의 하루를 꿈꾸게 하는 머니룩
- 10 **SELECTION FOR HER** 이적적이고 편안한 이스트 햄프턴 스타일 캐주얼룩.
- 12 **ARTS BY THE SEA** 5월의 부산은 덩달아 들뜨지 않기가 힘들 정도로 활기를 뿜어냈다. 특히 서울에서 매년 가을 열리는 KIAF와 더불어 국내 시장을 떠받치는 양대 아트 페어로 자리 잡은 아트부산(Art Busan)이 열리는 부산의 초여름 공기는 점점 활력을 더해가고 있다. 팬데믹이 드리운 장막도 이 속구쳐는 항구도시의 쾌활한 에너지와 미술계를 감싸는 폭발적인 열기를 당해내지 못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가 터진 2020년에는 어쩔 수 없이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했지만 지난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역대급' 성격작품 판매액 3백50억 원대, 공식 방문객 8만 명 이상을 냈는데, 올해는 그 기세를 시원하게 이어가면서 또다시 기록을 갱신해 갔다. 그저 현대미술 장터인 아트 페어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운대 일대가 들쭉날쭉한 민중 문화 예술 생태계의 역동성이 넘실댔던 부산에 다녀왔다.
- 15 **ART-PACKED LIFE** "미술 시장은 본래 소수의 선택된 개인을 위한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갤러리스트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의 말처럼, 요즘 미술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컬렉팅(collecting)'이라는 걸 코 녹록지 않은 취미가 많은 이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전속 아트바이어나 대리인을 두기 전에는, 아트 컬렉팅이 제대로 된 취미가 되려면 돈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들여야 한다. 작품을 사는 데 돈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네트워크를 하고 발품을 파는 시간을 투자하는 등 다각도로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외로 '충실한' 컬렉터는 드물다고들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 올해 아트부산 2022에서 현대미술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즐거는' 한 컬렉터의 공간은 그래서 몹시 반가운 발견이었다.
- 16 **CITY BIKERS**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정신으로 무장한 도시 속 거침 없는 질주!
- 17 **MY ONLY ONE** 그 어떤 화려한 주얼리보다 더 강력한 임팩트를 부여하는 다이아몬드 슬리더링 컬렉션.
- 18 **WATCHES & WONDERS 2022**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온 이번 워치스 & 원더스가 지난 4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에는 참석한 38개 시계 브랜드는 한층 더 무르익은 역량과 진보적인 기술로 저마다의 신제품을 내세우며 애호가들의 갈증을 한 방에 해소해주었다. 그중 가장 영감을 준 시계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 28 **WELCOME TO NEW WORLD** 자유로운 핑크 정신과 젯셋족의 유쾌한 에너지가 아우라진 가장 동시대적인 취향을 경험할 수 있는 MCM의 뉴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 30 **ISLAND FEVER** 지금 가장 달려가고 싶은 그곳에서, 2022 서머 리조트 룩 프리뷰.
- 38 **EDITOR'S PICK** 저자극 성분으로 케어하는 수분 가득 서머 뷰티 리추얼!

# IWC TOP GUN.



DOWNLOAD THE IWC APP FOR VIRTUAL TRY-ON

Pilot's Watch Chronograph TOP GUN Edition "Woodland". Ref. 3891: 탐견 항공학교 파일럿의 비행복에서 영감을 받은 짙은 녹색의 "우드랜드"는 IWC가 새롭게 개발한 컬러 세라믹입니다. 다이얼과 텍스타일 인레이 처리

된 러버 스트랩은 가벼우면서도 내스크래치성이 강한 세라믹 케이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IWC 자체제작 69380 칼리버가 탑재된 이 탐견 크로노그래프의 화려한 모노크롬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IWC-manufactured 69380 calibre · 46-hour power reserve · Day & Date display · Stopwatch function with hours, minutes and seconds · Water-resistant 6 bar · Diameter 44.5 mm

IWC Schaffhausen, Switzerland · www.iwc.com

**IWC**  
SCHAFFHAUSEN

# Style 조선일보

Issue.238 June 2022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시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j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권신비 분해 · 재판 | 리은 인세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 화려한 날들



섬세함과 디테일함으로 마치 향기가 날 것 같은 클라쉬 링 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헬 와인 주얼리** **까멜리아 피아제유 링** 18K 화이트 골드에 0.47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시그처 까멜리아를 섬세하게 나타냈다. 가격 미정. 문의 080-200-2700, chanel.com **다들 파인 주얼리 로즈 다들 바게텔** 링 장미꽃 디테일하게 형상화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1캐럿을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피아제 로즈 링** 만개한 장미 디자인이 돋보이는 18K 화이트 골드에 98캐럿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약 1.41캐럿을 세팅한 링 1천6백70만원. 문의 1668-1874 포토그래퍼 **최민정** 에디터 **성영민**

# SUMMER TIME

벨루타와 프랑스 아웃도어 가구 브랜드 텍토나 만나 서머 아웃도어 한정 제품을 소개한다. 뛰어난 기능성과 미학적 요소를 두루 겸비한 이 제품은 텍토나의 상징적인 티크 목재를 활용했다. 색지 않는 목재로 기동과 장미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극단적인 기후와 온도 변화, 그리고 장시간의 햇빛 노출과 비탈에도 끄떡없는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벨루타의 상징적인 스트리트 아르베스크 레더 제품에서 영감을 얻은 감각적인 캔버스 소재를 적용해 정채성을 이어나간다. 클래식 슬리드 티크 테크 체어 2백30만원대. 문의 02-547-1895



# NEW LADY

아이코닉한 'Lady Dior'의 자수 버전인 'Lady D-Lite' 백은 매 시즌 마리아 그라치아 차우리의 손길로 재해석된다. 이번 'Dioriviera' 캠페인 컬렉션에서는 크리스찬 디올 시그니처 장식과 함께 더욱 대담하고 구조적인 라인업이 돋보이는 에센셜 아이템을 선보였다. 특히 네온 블루, 오렌지, 핑크와 같은 대담한 컬러 팔레트를 사용해 리버스 컬러 버전으로 재해석해 탄생한 'Lady D-Lite' 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름에 단연 돋보이는 아이템이 될 것이다. 문의 02-3480-0104

# 대담함의 미학

강렬함과 모던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매력적인 피스, 클라쉬드 까르띠에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 컬렉션의 핵심인 골루 까레 링과 아이웨이비로 그것. 2배로 두꺼워진 디자인은 착용했을 때 더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으며 멀리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평범한 느낌을 더해 클래식한 룩이나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웨어러블함을 갖췄다. 더 대담하고 화려했지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클라쉬드 까르띠에의 매력에 빠져보자. 문의 1566-7277



# ON THE RED CARPET

쇼파드가 75회를 맞은 칸 영화제를 가리는 의미에서 무려 75점의 하이 주얼리로 구성된 레드 카펫 컬렉션을 만들었다. <스티렘라와 같은 고전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다채로운 피스들을 선보였으며, 주얼리 시계도 함께 소개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완성했다. 슈펠레 기둥의 역사적인 장인들의 솜씨로 탄생한 주얼리 시계가 먼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다이아몬드에 하트 모양 루비를 세팅해 낭만과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품은 워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90

# INSIGHT

편진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HEALTHY GLOW

해변에서 돋보이는 피부는 햇빛에 살짝 그을린 건강한 피부다.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이러한 건강함을 안겨줄 피우다는 비헝스 피우치에서 배놓을 수 있는 아이템. 고급스러운 팔각과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모든 여성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 사넬에서 레 베주 오버사이즈 헬스 글로우 하이라이팅 피우치를 출시한다. 큰 사이즈로 넓은 부위에 바른기 편한 것은 물론 사넬 로고가 새겨진 케이스와 피우치에 새겨진 아이코닉한 리운드 스퀘어 디자인까지, 차고고 다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텐더 핑크와 소프트 피치,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15g 1만1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 DREAM COLOR

초여름의 신선한 인센트, 컬러풀 백.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팬디의 아이코닉한 백인 피카부 아이씨유의 프티 사이즈로, 짙은 옐로 컬러가 룩에 포인트를 준다. 4백만원대 **팬디**. 문의 02-514-0652. 나파 켈 스킨 소재를 수직적으로 패딩 처리해 독특한 감성을 더한 시그처 그린 컬러의 패디드 카비트 백 4백32만원 **보헤미안 백**. 문의 02-3438-7882. 블루 카브 스킨 소재의 마이크로 사이즈 벨링 백 가격 미정 **다들**. 문의 02-3480-0104 포토그래퍼 **최민정** 에디터 **성영민**



# IT SHOES

토스가 제안하는 T 타입리스 클로저를 눈여겨볼 것. 원목 소재를 적용한 블로퍼 스타일의 물로 투박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지어낸다. 발등 전체를 감싸는 맥시한 스트랩 위 T 타입리스 로고로 정채성을 이어나가며, 밑창과 굽은 인체 공학적 설계에 기반한 곡선으로 마무리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1백만원대. 문의 02-3438-6008

# 더콘란샵 X 스튜디오워드 'FADE COLLECTION'

영국 태생의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브랜드 더콘란샵(The Conran Shop)과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스튜디오워드(STUDIO WORD)에서 의미 있는 협업 작품을 처음 선보였다. 부드러운 각면이 섬세하게 이어지면서 기운을 연상시키는 곡선의 미학, 자연스럽고도 깔끔한 질감, 은은한 색감의 조합이 돋보이는 한식기 세트 'FADE Collection'이다. 국내 디자이너 스튜디오와 콘란의 제품 협업을 통한 만남은 이번이 최초라 눈길을 끈다. 소박하고 담담하지만 동시에 산뜻한 느낌이 라는 스튜디오워드 디자이너들의 설명처럼 단아하면서도 틀어다볼수록 정교한 배합이 매력을 뽐내 내는 테이블웨어다. 예컨대 산청토와 백자를 섞어 개발한 아이보리 톤의 흙과 찰점의 배합이리든지, 같은 내추럴한 재질을 매트하게 살리고 인은 유약 마감을 하는 등의 세심한 처리가 스며들어 있다. 밥공기, 국공기, 찬기, 종지 등 총 12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더콘란샵 서울 강남점 2층에서 오는 6월 7일까지 팝업 섹션 전시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31-2591 **고효연**



# 립밤의 세계

간결하게 생겼지만 입술을 만들어줄 랩밤! (왼쪽부터) **에스티로더 퓨어 컬러 리틀러시 립밤** 은은한 핑크빛 틴트가 입술 pH에 반응해 분연의 생기를 불어준다. 3.2g 4만4천원대. 문의 02-6971-3212 **다들 아티스트 립글로우 #033** 풍부한 채리 오일을 함유해 넘치는 수분감을 부여한다. 핑크와 코랄 컬러가 밸런스를 이루는 매력적인 컬러를 담았다. 3.2g 4만6천원대. 문의 080-342-9500 **에르메스 로즈 에르메스 로지 립 인텐서 #로즈 데체 30** 부드러운 투명한 핑크 컬러를 표현한다. 입술에 매끄럽게 녹아 매혹적인 광택을 선사한다. 4g 9만원. 문의 02-310-5174 **사넬 루주 코코 밤 #918 마이 로즈** 실크처럼 부드럽게 발려 맑게 레이어링되는 타입. 세미-글로 피니싱으로 은은한 반짝임을 더한다. 3g 4만6천원. 문의 080-805-9638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이유이** 어시스턴트 **신정림**

신뢰가 깨지지 않을 초경량  
로마자 미니스카프 37x100cm,  
50만원, 에르메스.

메탈 프레임 에어비이어터 선글라스 40만원대 **심바토레 페라카모**.

신발이든 신발이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크로세 스니커즈  
1백23만원  
발렌티노  
가르바니.

우븐 디테일 브라운 카프 스킨  
T 타원리스 벨트 1백만원대 토즈.

블루 스타일링로 프론트를 쓴  
레니쉬가자 미팅 **에르메스**.

# for him Selection

생트로페에서의 하루를 꿈꾸게 하는 머린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스피드마스터  
크로노스코프 쿼츠-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3MM  
1천1백만원  
오메가.

하이트 골드 버클 장상의 코스텐  
브레이슬릿 5백50만원 **프라이드**.

라미아 스킨 트라피자  
백, 23x20x14cm,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  
인토니 바카렐로.

실버인 브루스의  
조합으로 선보이는  
달 모양 이어링  
7만원 **프라이드**.

담시인 블루 레더로 장식된 미니스트릭  
62는 플레트 지갑 12만원 **몽블랑**.

시바라수플 카프 가죽을  
라이팅한 캔버스 토트백,  
37.5x14.5cm,  
가격 미정, **엘보**.

영차와 플레티, 베티모트가 어우러진  
신선한 에타의 향, 아미자나스 100ml 40만원대 **루이비통**.

브라운 디테일이  
아이디어를 탄생케한  
신스카프 12만원  
**올스미스**.

고른 드로스팅 비유대관초  
가격 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ASERBIATE 200ml 아나스트레 **몽블랑**, **몽블랑**  
에타이 **아미자**

에르메스 02-542-6622 **심바토레 페라카모** 02-3430-7854  
**일레븐티** 02-6905-3710 **발렌티노 가르바니** 02-2015-4853  
**오메가** 02-3467-6632 **토즈** 02-3438-6008  
**프라이드** 02-514-3721 **몽블랑** 1670-4810 **생 로랑 바이**  
**인토니 바카렐로** 02-6905-3924 **올스미스** 02-3442-3012  
**프라이드** 02-3218-5320 **엘보** 02-6905-3709 **루이비통**  
02-3432-1854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Publicis EtNost



Time travels the world.

ARCEAU LE TEMPS VOYAGEUR



TIME, A HERMÈS OBJECT.





미노디에르로 백  
가격 미정 샤넬.

샤넬의 모든 오방 투루  
신출각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인도니 바이칼로.

핀스타이브  
리미아 토트백,  
34x40cm,  
2백70만원 프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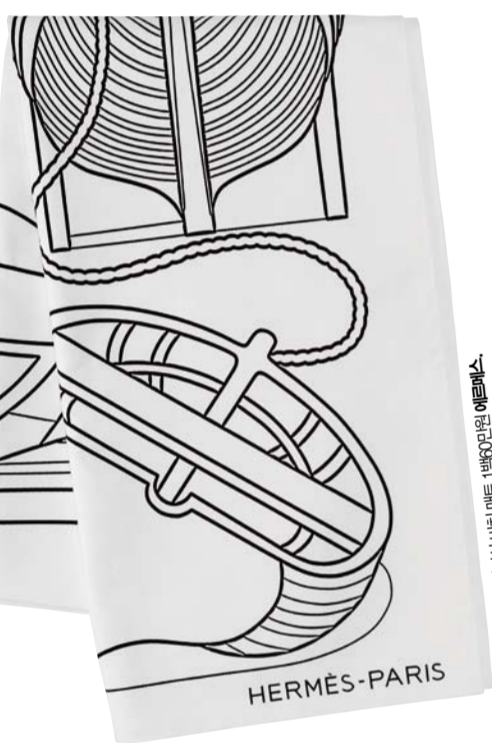
포인트 스킵 스타트 스텝에 스트랩을 매워진  
파우 핏 1백50만원 에르메스.

그로그링 소재  
에스티드라유 가격 미정  
샤넬.

샤넬의 모든 오방 투루  
신출각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인도니 바이칼로.

# for her Selection

이지적이고 편안한 이스트 햄프턴 스타일 캐주얼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리미아 소재  
킷아웃 미니  
백, 11x17cm,  
1백67만원 자형사.

메탈 브라운 슬릿  
가격 미정 샤넬.



브랑과인트 컷  
다이아몬드 8개를  
배열해 세팅하고  
화이트 사틴  
스트랩을 매워진  
알티플라노 워치  
1천2백만원대  
피아제.



리워드 페이즐리 니트 브라 세트 가격 미정 에트르.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드와 화이트 후프  
이어링 1천만원대 부세론.



태디 크로켓 핏으로 샤넬 230엔티에  
홀로 핏으로 샤넬.



화이트 소가죽 윈스터드  
슬리이드 1백1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나.

유라 스텝으로 D3 크로켓  
핑크 핏으로 샤넬, 20x20cm,  
1백70만원 발렌티노.



샤넬 080-805-9628 생 로랑 바이인도니 바이칼로 02-549-5741  
프라다 02-3218-5320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2-514-0662  
자형사 02-546-2790 피아제 1668-1874, 02-540-2297(갈라리아)  
다들 02-3480-0104 에트르 02-3446-1369 홀로 핏으로 샤넬  
02-6004-0221 부세론 02-6905-3322 발렌티노 가리버나  
02-2015-4653 발렌티노 가리버나 02-3442-6888



LIVE THE JOY  
**FRED**

FORCE 10 COLLECTION

아트부산 2022를 둘러싼 이모저모의 미학

# Arts by the Sea

5월의 부산은 덩달아 들뜨지 않기가 힘들 정도로 활기를 뿜어냈다. 특히 서울에서 매년 가을 열리는 KIAF와 더불어 국내 시장을 떠받치는 양대 아트 페어로 자리 잡은 아트부산(Art Busan)이 열리는 초여름의 공기는 점점 활력을 더해가고 있다. 팬데믹이 드리운 장막도 이 솟구치는 항구도시의 쾌활한 에너지와 미술계를 감싸는 폭발적인 열기를 당해내지 못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악재가 터진 2020년에는 어쩔 수 없이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했지만 지난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역대급' 성적(작품 판매액 3백50억원대, 공식 방문객 8만 명 이상)을 냈는데, 올해는 그 기세를 시원하게 이어가면서 또다시 기록을 거뜬히 갈아치웠다. 그저 현대미술 장터인 아트 페어만의 얘기가 아니다. 해운대 일대가 들쭉날쭉한 만큼 문화 예술 생태계의 역동성이 남달랐던 부산에 다녀왔다.



## # Scene 1 BEXCO 일대

### 갤러리 열전과 주목할 만한 'New Comer' GRAY

집작은 했지만 '역사'였다. 최근 미술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호황기인지라 상반기를 대표하는 행사인 아트부산에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수치'로는 예상(6백억원 수준)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나흘간(5.12~15) 진행된 아트부산 2022는 10만 명 넘는 관람객을 동원하고 판매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7백46억원대 추정) 늘어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열린 부산국제회화아트페어(BAMA)도 10만 명 수준의 방문객을 불러모았는데, 다시 이 정도로 발길이 모였다는 건 현대미술 장터를 둘러싼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일부 갤러리들은 첫날부터 '솔드아웃(매진)' 소식을 알리며 개막부터 열린 양상을 띤 올해의 아트부산에는 1백33개 갤러리(국내

1백1개, 해외 32개)가 참여했다. 아트 페어 도시로서의 가능성이 눈에 띈 2019년에 비해서는 다양성의 면모가 다소 떨어진 모양새다. 당시 17개국에서 1백64개 갤러리가 참가했는데, 그중 58개가 해외 갤러리였다. 여기에는 세계 최고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에 나가는 유럽 화랑도 처음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사실 "작품이 없어 못 판다"고 말하는 관계자들이 다수다. 지구촌 미술 시장이 워낙 좋고 아직은 물류의 제약도 있는 터라 부산에 오고 싶어도 부스를 채울 만한 작품의 공급이 달린다는 얘기가. 더구나 유수 글로벌 갤러리들은 오는 9월 서울에 처음 진출하는 세계적인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에 참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리기도 했던 듯하다. 수요는 하늘을 찌를 기세인데 작품을 찍어 낼 수도 없는 터라 철저히 '셀러 주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눈에 띈 '신참자(new comer)'는 미국 갤러리인 그레이(GRAY)다. 이 갤러리는 파블로 피카소, 데이비드 호크니, 샘 프랜시스 등 경쟁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이 중 삼차원 사진과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포토그래픽 드로잉(photographic drawing)' 방식의 8.7m 대형 작품인 호크니의 'Pictures at an Exhibition'(2018)과 스페인 작가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공공 미술 작품으로 유명한 하우메 플렌자(Jaume Plensa)의 커다란 청동 두상 작품 'Green Forest'(2019) 등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상의 '인기 콘텐츠'이기도 했는데, 둘 다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 관계자는 "맥아서 비니언(McArthur Binion), 짐 다인(Jim Dine), 알렉스 카츠(Alex Katz) 등의 작품을 포함한 (양호한) 판매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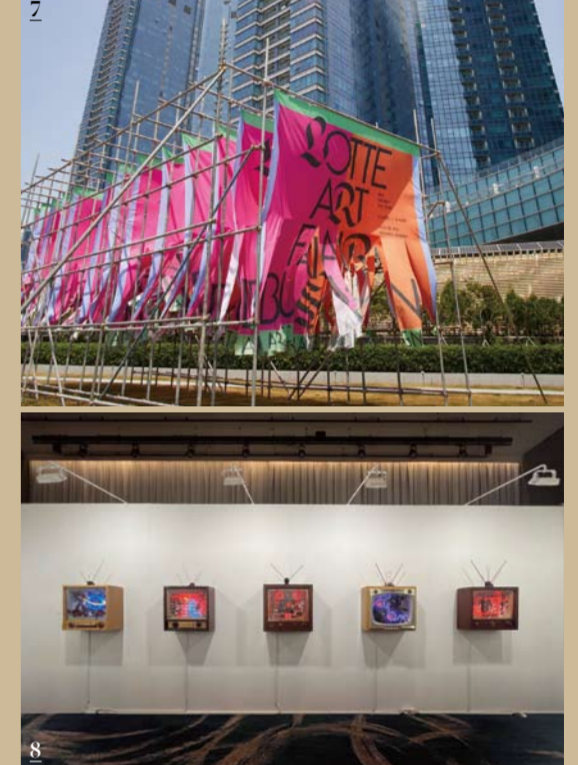
### 부산시립미술관(BMA)의 발품 부르는 전시 콘텐츠

흔히들 아트 페어에도 '수명'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유지하고 노화를 막으려면 '아트 신(scene)'을 이루는 다각적인 행보가 나란히 전개되어야 한다. 도시 자체적으로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인구가 타지에서 찾아올 정도로 매력적인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 컬렉터층이나 작가들, 미술관과 갤러리 등의 인프라 면에서 그다지 탄탄한 토대를 지녔다고 평가받지 못했던 부산이 3~4년 전부터 '아트 도시'로서 가능성을 내비친 배경에는 아트 신 자체가 풍부해진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2018년 을숙도에 부산현대미술관이 문을 열면서 생태, 환경, 노동 등 첨예한 사회 이슈들을 아우르는 동시대 예술을 소개하는 동시에 미술 축제인 부산비엔날레의 메인 전시장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국내 메이저 화랑인 국제갤러리 부산점이 망미동의 복합 문화 단지 F1963에 등지를 틀었는가 하면, 지역 기반의 작가를 지원하는 중소 갤러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또 아트부산의 무대인 BEXCO 전시장 이웃에 자리한 부산시립미술관은 2019년부터 별관인 '이우환 공간'에서 세계적인 현대미술가를 초청하는 기획전 시리즈 '이우환과 그 친구들'을 해마다 열면서 수준을 높였고, 최근 들어 흥미로운 전시 콘텐츠로 대중성과 내실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현재 한국현대미술의 주요 지점에 위치한 작가를 소개하는 개인전의 4탄으로 '뎀'에 대한 주제 의식을 꾸준히 펼쳐온 <이형구> 전시(오는 8월 7

일까지)와 관람객들이 요가, 댄스 등 여가 콘텐츠를 미술관에서 함께하는 기획전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오는 10월 16일까지)도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기간 부산을 찾은 아트부산 방문객의 발품도 덩달아 팔개 했다.

### # Scene 2 달맞이길의 눈 호강

아트와 디자인, 공예의 조화 롯데아트페어 2022 부산 성공적인 아트 페어를 둘러싼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는 '위성 아트 페어'의 등장일 것이다. 올해 아트부산 기간에 부산을 찾은 이들은 유달리 바빠 움직여야 했던 것도 바로 새로운 아트 페어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부산 엘시티에 자리한 호텔 시그니얼 부산에서 개최된 '롯데아트페어 2022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Art & Design & Craft'를 주제로 예술뿐 아니라 디자인과 공예를 아우르는 프리미엄 아트 페어로 기획한 행사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첫술에 배부르랴' 할 법하지만 미술 시장의 호조세와 맞물려 디자인과 공예를 내세운 차별화 전략으로 꽤 인상적인 출발을 알렸다. 챗터원, 인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클레토 무나리, 그리폰 등 다양한 기관, 브랜드와 손잡고 아트 퍼니처와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편 '박서보 X Alessi 와인 오픈' 등의 한정판 에디션 구성을 더해 요즘 인기 있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잘 버무렸다는 인상을 자아냈다. '아트 페어 자체는 12개 갤러리만 참가했지만 다채로움이 돋보이는 일산 '부티크 페어' 느낌을 줬다. 백남준 작품을 선



보인 갤러리 아트링크,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는 전광영 작가의 작은 특별전을 비롯해 여러 작가를 소개한 인터아트체널, 한옥 호텔을 운영하며 모은 골동 컬렉션과 관대집 도예가의 달향아리 등을 선보인 락고재 등 부스들

1 올해 아트부산에 처음 참여한 미국 갤러리 그레이(GRAY)의 부스 풍경. 'Green Forest/Maria'라는 조각 작품 등을 선보인 스페인 예술가 하우메 플렌자(Jaume Plensa)를 비롯해 맥아서 비니언(McArthur Binion), 짐 다인(Jim Dine), 알렉스 카츠(Alex Katz),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등을 들고 나왔다. 2 지난 5월 12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VVIP 프리뷰 세션에 참석한 관람객들. 10만 2천 명 규모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아트부산 2022. 1, 2 Photo by SY KO 3 올해 예상치를 훌쩍 넘긴 7백46억원대의 판매액을 기록했다고 공개한 아트부산(Art Busan) 2022는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트 페어다. 로버트 안드레아니의 숫자 시리즈를 비롯해 장성화, 이강소, 이진영, 김민정 등의 작품을 선보인 갤러리현대 부스 풍경이 보인다. 이미지 제공: 아트부산 4 David Hockney, Pictures at an Exhibition, 2018, Photographic drawing printed on 8 sheets of paper (107 1/2 x 42 7/8" each), mounted on 8 sheets of Dibond: Edition of 12, 107 1/2 x 343" overall, © David Hockney, assisted by Jonathan Wilkinson. 아트 페어 개막 전부터 화제를 일으켰던 영국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형 포토그래픽 드로잉 작품이다. 이미지 제공: GRAY 5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뎀에 대한 주제 의식을 꾸준히 다져온 이형구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 풍경 (한국현대미술작가조명 IV-이형구/鳳은 8월 7일까지). 6 관람객들이 요가, 댄스 등 여가 콘텐츠를 미술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우환공간 기획전 <나는 미술관에 ●●하러 간다>(오는 10월 16일까지). 7 부산의 역사인 호텔 시그니얼 부산에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린 롯데아트페어 2022 부산. 롯데백화점과 롯데갤러리의 주도로 올해 처음 개최된 아트 페어와 예술인이 아니라 디자인과 공예를 키워드로 내세운 행사로 주목받았다. 8 백남준의 '넌은 TV 시리즈' 등의 작품을 선보인 갤러리 아트링크 부스 모습(롯데아트페어). 9 상가부로의 동시대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갤러리현대 아트 프로젝트 부스의 모습. 감각적인 색감과 디자인의 소유자 라바디우 피코(Labadiou Piko) 등의 작품을 선보여 호평받았다(롯데아트페어).





의 면면이 흥미로웠다. 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갤러리인 아이웨이웨이, 주진스, 자오자오 같은 글로벌 팬덤을 지닌 작가들을 거느린 탕 컨템포러리 아트와 젊은 인기 작가진으로 유명한 갤러리 스텐은 아트부산과 더불어 롯데아트페어에도 부스를 차려 시선을 끌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글로벌 작가 라바디우 피코(Labadiou Piko)의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 헤치아트 프로젝트의 부스는 독특한 색감부터 단연 눈길을 사로잡았다.

### 새로운 전시 공간을 수놓은 아베 개인전 '조현화랑'

시그니엘 부산이 자리한 부산 달맞이길의 명물 갤러리 조현화랑은 올해 단단히 버린 느낌이었다. 담쟁이 덩굴로 덮인 소담스러운 건물을 확장해 2층 공간까지 거느린 전시 무대를 공개했는데, 그 첫 단추로 '솨의 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오고 있는 아베 작가의 개인전 (oblique/비스듬하)'를 선보였다(오는 7월 3일까지). 달맞이길의 새 공간과 더불어 해운대 공간에서도 동시 진행되는 이 전시는 일단 1층 전시장 전체를 수놓고 있는 존재감 넘치는 대형 설치 작업부터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조현화랑 큐레이터는 "1층 공간 자체가 마치 커다란 캔버스인 듯 벽과 바닥을 종이로 씌워 그림 공간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전 전시들과 차별화된다"면서 공간과의 조응이 남다른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관람객은 그림이 그려진 종이 위에 올라 작품의 일부가 된 느낌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다. 또 새롭게 자리한 2층에는 김정 솨으로 화면을 만들고 그 위에 오일 파스텔을 활용해 흰 선들을 그린 작품 '불로부터(Issu du feu white line)' 시리즈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 공간과의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조화를 이끌어내는 느낌이었다. 아베 작가는 바닷가와 맞닿아 있는 조현화랑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공간 자체를 하나의 화면으로 해석했고, 부산 밤바다에 비가 내리는 풍경을 연상했다고.

### #Scene 3 알짜배기 '장외' 행사들 루이비통 <장인 정신>展 등 정의 행사 풍경

미술계에서 아트 페어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저 '큰손' 컬렉터의 취향을 반영하고 유행을 주도하는 현대 미술 장르의 수준을 넘어 역량 있고 참신한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 콘텐츠와 실험적인 시도가 녹아든 작품을 접하는 무대이자 여러 이슈를 논하는 담론의 장으로도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트 페어라는 콘텐츠 하나만으로 부산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아트 도시'로 발돋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홍콩, 마이애미 등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아트 바젤처럼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만한 아트 페어의 몫도 중요하기는 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위성 아트 페어의 등장이라든지 공공 미술관의 수준 높은 콘텐츠, 도시 재생 정책으로 꾸러온 예술 마을 조성 사업, 고은사진 미술관 같은 특화 공간, 그리고 크고 작은 상업 화랑들의 다



채로운 행보는 반길 만하다. 매년 결이 대동소이한 갤러리들의 부스 구성과 콘텐츠가 지속되면 어느덧 관람객은 싫증 내기 마련이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빌려 아트 페어 참가와 동시에 '장외' 전시를 펼치는 갤러리라든가, 아예 브랜드 차원에서 독립적인 전시 콘텐츠를 내놓는 풍경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닐까 싶다. 예컨대 '여행의 예술을 브랜드 DNA에 담고 있는 루이 비통은 올해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에서 VIP 고객들이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닿은 다양한 맞춤 제작 트렁크들, 그리고 글로벌 디자이너들과 펼쳐온 '오브제 노마드'라는 협업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아트 퍼니처를 접할 수 있는 <장인 정신> 전시를 마련해 쓸쓸한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글 **고성연**

1 솨의 작가로 글로벌 무대에서 명성을 쌓아오고 있는 아베(Lee Bae) 작가의 개인전 (oblique/비스듬하)의 일면이 전시장 2층 풍경. 지난 5월 13일 부산의 대표적인 갤러리 조현화랑 달맞이길(해운대)에서 동시에 시작된 이 전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계속된다. 불로부터(Issu du feu white line) 시리즈가 백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미지 제공 조현화랑 2 전시장을 증축해 공간이 넓어진 조현화랑의 아베 작가 개인전 풍경(2층). Photo by SY Ko 3 루이 비통이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에서 장인의 손길로 다양한 맞춤형 트렁크 라인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조우해 뛰어난 디자인과 오브제 노마드 구성된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협업전을 접할 수 있는 <장인 정신>展을 열었다. 이 전시는 올해 아트부산 2022와 협업해 아트 페어의 VIP 루이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했다. © Louis Vuitton / Nam Kiyong 4 올해 아트부산 2022 기간에는 어느 때보다 BEXCO 전시장을 벗어난 '장외' 콘텐츠가 더 흥미롭게 펼쳐졌다. 미술관이나 아트 스페이스의 기획전 말고도 아트부산 참여 화랑 중에도 BEXCO 부스와 더불어 다른 전시 장소를 마련한 경우가 있었다. 사진은 독일 보데갤러리가 해운대구의 주상 복합 건물에 별도로 꾸린 전시 공간 모습. 디트리히 플레머, 믹스 아카인 등의 작품이 보인다. Photo by SY Ko



# Collector's Space in Busan 류지혜 Art-Packed Life

"미술 시장은 본래 소수의 선택된 개인을 위한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갤러리스트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의 말처럼, 요즘 미술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컬렉팅(collecting)'이라는 결코 녹록지 않은 취미가 많은 이들의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전속 어드바이저나 대리인을 두기 전에는, 아트 컬렉팅이 제대로 된 취미가 되려면 돈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들여야 한다. 작품을 사는 데 돈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네트워킹을 하고 '발품을 파는' 시간을 투자하는 등 다각도로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외로 '충실한' 컬렉터는 드물다고들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 올해 아트부산 2022에서 현대미술을 진지하고 충실하게 즐기는 한 컬렉터의 공간은 그래서 몹시 반가운 발견이었다.



#히토 슈타이어 작품을 방안에 둔 개인 소장가 바다 전망을 품고 있던 하지만 습한 해변을 아주 가까이 두지는 않은,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기에 쾌적해 보이는 해운대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오래됐지만 잘 정돈된 이 단지에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꼽히는 히토 슈타이어(Hito Steyerl)의 미디어 작업이 설치된 아파트가 있다는 게 살짝 신기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에서 히토 슈타이어 전시가 대규모로 진행 중인데, 마침 가까이 선보이고 있는 파워 플랜트(Power Plants)라는 2019년 작품이 그 주인공이다. 암실처럼 어둡게 해놓은 아파트의 한 방에 마치 '디지털 병풍처럼' 자리한 이 작품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피어날 가상의 식물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 '무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치료', '독자적'에 대항하는 '독살' 등을 뜻하는 라틴어 이름을 갖고 있다고. 아트부산 YCC(Young Collectors Circle) 세미나 1기 회원인 40대 컬렉터 류지혜 씨의 공간은 어쩌면 히토 슈타이어의 영상(film) 작업은 몰라도 이러한 유형의 멀티 채널 비디오 작업을 미술관이나 재단 차원이 아닌 개인이 소장한 국내 유일의 사례일 수도 있을 듯하다. 영국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 프리즈 런던에서 2019년 구매했는데, 사실 개인 소장이 가능한지 몰랐다가 의외였다고. '작업도 몰라보고, 무기 사업이나 마약 거래를 하는지 여부도 작가 측에서



1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 자신의 컬렉션 공간을 둔 40대 컬렉터 류지혜 씨의 가실 풍경. 왼쪽 벽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체코 태생의 작가 스타니슬라바 코발치코바(Stanislava Kovalcikova) 작품을 비롯해 애드 미넬리(Ad Minoli), 샬리 보노(Shannon Bono) 작가의 회화가 걸려 있다. 2 볼라비에게 미국인 작가 도나 후안가(Donna Huanca)의 평면 작업과 작가가 루이 비통과의 '아티카' 부산 프로젝트에 협업해 선보인 한정판 백. 3 옥승철, 율리 바버 등 다국적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는 방. 4 올해 아트부산 2022에서 부스로 주목받은 이희은 작가의 2019년 작품 'Blei no. 21'(왼쪽), 2020년 작품 'Hello Summer'(오른쪽). 국제갤러리 부산 전시를 앞두고 있는 젊은 작가다. 1~4 이미지 Photo by SY Ko 5 왼쪽에 히토 슈타이어(Hito Steyerl)의 'Power Plants'(2019), 오른쪽에 최태진 작가가 직접 며칠 동안 작업한 'Somebody to Love'(2022)가 설치되어 있다. 6 독일 베를린 기반의 갤러리 페레스 프로젝트(Peres Projects) 대표 하비에르 페레스와 함께 포즈를 취한 류지혜 컬렉터. 5, 6 이미지 제공, 류지혜

확인하더라도, 그래서 대한민국 주부라고 했죠. (웃음) 전문 엔지니어가 해외에서 몰소 와서 아파트 방 크기에 맞춰 설치했다. 이렇듯 히토 슈타이어를 비롯한 그녀의 미술품 컬렉션이 구축구색 알차게 전시된 이 아파트는 남편의 일 때문에 부산에서 살던 집이었는데, 서울로 이주한 지금은 정기적으로 방문해 작품을 돌보고 자신들과 함께 감상하는 공간으로 애용한다.

### #"결국 컬렉팅도 나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라는 충실한 컬렉터의 수집 미학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어릴 적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던 류지혜 씨는 미술사, 미학 등의 강의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각종 비엔날레나 아트 페어를 찾아다니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한창 사춘기 남자들이 키우고 있던 무렵 눈 오는 도시 풍경이 마음에 와닿았던 박병일 작가의 한국회를 시작으로 약 15년간 컬렉터의 삶을 꾸려오고 있다. 현재 1백여 점의 소장품이 있지만 아직 한 점도 시장에 판매한 적은 없고, 당장 그걸 계획도 없다고. 한국의 젊은 미술가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그녀는 "컬렉팅 기준이나 원칙은 따로 없지만 작가와 큐레이터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진지하고 꾸준히 작업해왔다 싶으면 마음이 간다"고 했다. "과거에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눈길이 갔다면 지금은 세상에 공감함을 갖고 언어요, 기억, 경계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정로, 매체는 가리지 않아요." 단지 물리적 공간이 제한된다 보니 앞으로 동영상 작업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실제로 그녀의 공간에는 옥승철, 이희은, 유예림, 정화민 같은 MZ 세대 작가들의 회화 작품과 대형 TV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로외정의 미디어 작품, 추상화





# City Bikers

유행하고 자유분방한 정신으로 무장한 도시 속 거침없는 질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텐트 나옴은 소재 반짝, 삼각형의 카라비너를 갖춘, 질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1백63만원 **보타가 베가타**, 문의 02-3438-7682. 핫스텝 로고 팬던트로 포인트를 준 옐로 바이커 재킷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218-5320. 블랙 카프 스킨 청키 트레이너 레이스업 부츠 가격 미정 **셀만스 바이 에디 솔라전**, 문의 02-549-6631. 에너지를 넘치는 맥시멀리스트 감성을 담은 투루용 가죽 카를 50 반들라에 5백50만원대, 입문전 모노그램 스카이트보드 3백만원대 모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다크 옐로우 컬러를 입힌 안티고나 크로스 보디 백 2백만원대 **지형사**, 문의 02-546-2730 **에디터 아주이**



(위부터 차례대로) **다이아니 벨 에포크 플라티넘 솔라테어 다이아** 링 독특한 세팅의 0.32캐럿 솔라테어 다이아몬드가 돋보이도록 사이드 다이아몬드 약 0.47캐럿을 파헤 세팅한 밴드가 인상적인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프레드 달핀 안개이전트** 링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38개를 파헤 세팅한 플라티넘에 0.77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올려 화려함을 강조한 솔라테어 링 1천3백85만원, 문의 02-514-3721

**파이에 알렉산스 안개이전트** 링 반짝임을 극대화한 약 1.01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다이아몬드 위로 완만하게 휘 곡로를 더해 모던하고 심플하며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한다. 3천4백80만원, 문의 1668-1874

**티파니 트루** 링 얇은 플라티넘 밴드가 세팅한 티파니 트루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의 기하학적인 모양이 독특한 세련미를 자아내며 현대적인 감성을 전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쇼메 비 마이 러브 솔라테어** 링 별장에서 모티브를 얻은 육각형 큐브로 연결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밴드가 독특한 개성을 풍내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헤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1.01캐럿부터 1.29캐럿까지 캐럿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 1.01캐럿 2천1백만원대, 문의 02-3442-3359

**블기리 로마 이모르** 생동감 넘치는 로마의 정신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안개이전트 링으로 플라티넘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강렬한 우아함이 돋보인다. 0.5캐럿부터 1.5캐럿까지 캐럿 및 다이아몬드 등급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 0.5캐럿 가격 미정, 문의 02-2056-0171

**쇼피드 솔라테어** 링 모던하고 각지게 컷된 화이트 골드 밴드 위에 0.77캐럿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으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자랑한다. 9백1만원, 문의 02-6905-3390 **에디터 성정민**



# My only One

그 어떤 화려한 주얼리보다 더 강렬한 임팩트를 부여하는 다이아몬드 솔라테어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Watches & Wonders 2022

2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돌아온 이번 워치스 & 원더스가 지난 4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38개 시계 브랜드는 한층 더 무르익은 역량과 진보적인 기술로 저마다의 신제품을 내세우며 애호가들의 갈증을 한 방에 해소해주었다. 그 중 가장 영감을 준 시계들을 선별해 소개한다.

## Ultimate Creativity

전통과 혁신이 지속적인 조화를 이루며, 무한한 창의성을 녹여낸 까르띠에 시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계의 연결체로서 뚜렷한 가치를 전한다. 올해도 메종은 '시간은 측정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 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비전과 함께 워치메이커로서, 그리고 주얼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 CARTIER

### Masse Mysterieuse 마스 미스터리어스

무브먼트를 전면에서 드러내 기계식 위치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이 시계의 이름은 '마스 미스터리어스'다. 복잡 정교한 칼리버를 전면에서 드러내면서도 결코 복잡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까르띠에 특유의 간결한 미학 덕분. 반원 형태로 과감하게 무브먼트를 줄인 로터 모양의 칼리버가 시계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이 타임피스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의 연결체로, 메종의 두 가지 시그너처 기술인 미스터리 무브먼트와 스켈레톤 기술을 융합해 선보이는 역작이다.

### 탁월한 기술력으로 빛어낸 기계식 메커니즘의 미학

시계바늘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는 수수께끼 같은 이 위치는 메종의 역사에서 독립된 장을 이루는 '미스터리 클락' 기술을 스토리의 중심으로 삼는다. 핸즈가 무브먼트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고 마치 클락의 투명한 몸체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미스터리'라고 불리며, 루이 까르띠에와 워치메이커 모리스 쿠에(Maurice Couet)의 공동 개발로 탄생했다. 핸즈를 무브먼트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 톱니 모양 금속에 부착된 2장의 크리스탈 디스크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클락 하단 받침대 속에 설치된 무브먼트가 작동하면, 2장의 크리스탈 디스크가 하나는 분의 속도로, 다른 하나는 시의 속도로 돌아가면서 핸즈를 움직이는 원리. 디스크 가장자리는 시를 표시하는 원형 트랙으로 숨겨져 핸즈가 완벽하게 허공에 떠 있는 듯 매력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또 다이얼 중앙을 비우고 칼리버를 과감하게 전면에서 드러냈다는 점에서 까르띠에만의 독보적인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시계 기술의 극치라 불리는 스켈레톤 타입으로 완벽에 도전하는 칼리버 9801 MC의 복잡 정교한 메커니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마스 미스터리어스를 통해 선보이는 크리에이션에서



는 '로터가 진정한 요소로 부상해 워치메이킹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끈다. 매뉴팩처에서 장 8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칼리버 9801 MC가 바로 그 주인공. 혁신적인 원리를 적용한 이 칼리버는 시계의 정확성을 방해하는 요소인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밸런스 휠이 언제나 동일하게 수직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고, 로터는 불규칙한 속도로 양방향 회전한다. 특히 하나의 프로토타입으로 완성되기까지 각각

다른 다섯 가지 구조가 요구되는데 무브먼트, 트랜스미션, 레귤레이션에서 동력을 전달받는 모든 부품이 로터에 통합되었다. 또 스켈레톤 처리해 로터가 움직이는 모든 장판을 생생히 볼 수 있다. 중심 부분에는 자동차입계에서 차용한 극도로 정교한 차동 시스템(differential system)을 무브먼트에 적용해 시간 디스플레이를 원활하게 보여준다. 탁월한 기술력으로 구현한 정교함은 미학을 통해 완성되기 마련. 오픈워크 다이얼 위 반원형 스켈레톤 무브먼트는 결코 혼잡함으로 시선을 끌지 않는다. 무브먼트는 시계 구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남기고 모두 깎아냈으며, 브리지는 정교하게 세공해 우아한 곡선미를 살렸다. 또 각각 브리지 사이에 세팅한 7개의 인조 루비는 마치 보석처럼 반짝인다. 높은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최대 42시간



1 메종 고유의 미스터리 클락 기술과 스켈레톤 기법으로 빛어낸 마스 미스터리어스. 2 지름 43.5mm 플래티넘 케이스에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선보인다. 3 특유의 카보숑 컷 운동으로 메종의 정체성을 이어가며, 고유 변율을 부여해 30피스 한정으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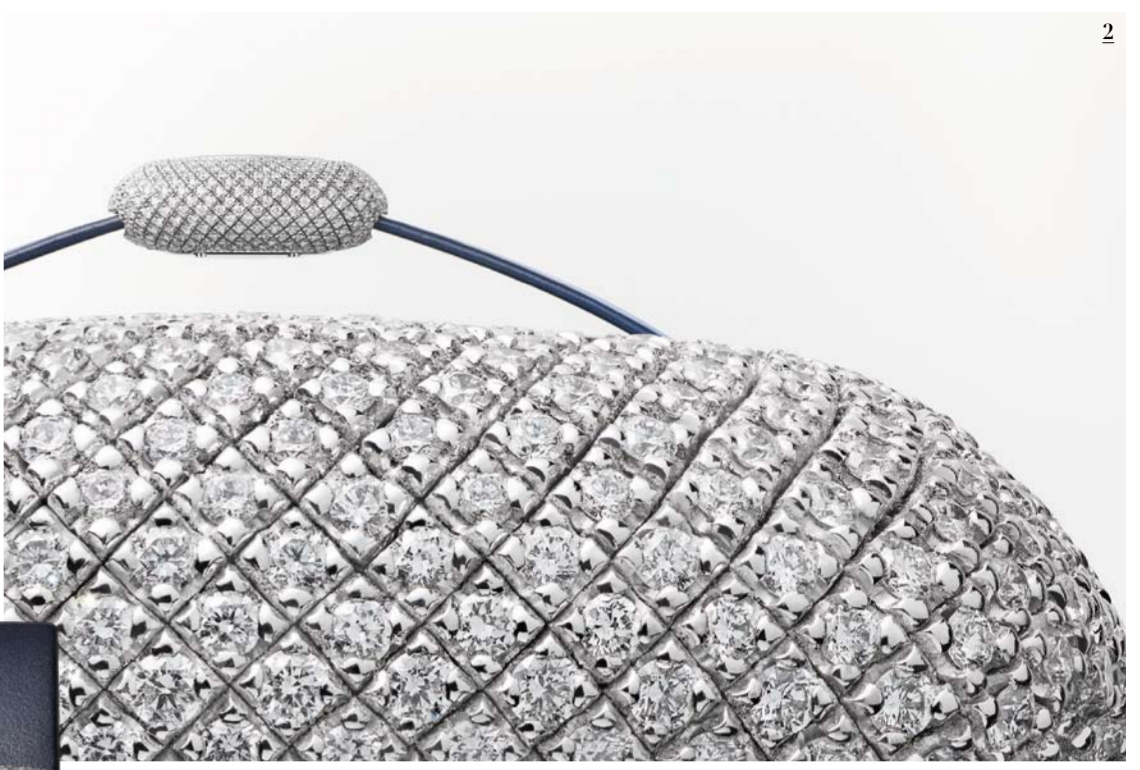


### Coussin de Cartier 쿠쌍 드 까르띠에

형태와 비율, 볼륨과 소재가 어우러진 아름다움의 프리즘 아래에서 빛을 발하는 이 매혹적인 타임피스들은 주얼러와 워치메이커로서 까르띠에의 무르익은 역량과 장인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한 신작이다. 쿠션 형태의 볼륨감 넘치는 케이스에 각기 다른 사이즈의 스톤으로 역동성을 강조하고, 강렬하고 그래픽적인 골드 테두리의 조합이 우아한 이미지를 그려내는 이 모델은 메종의 아카이브를 이루는 주얼리 워치에서 영감을 얻었다. 골드와 다이아몬드 버전, 두 가지 스톤을 조합해 선보이는 투톤 버전과 컬러 스톤이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실험적인 버전이 라인업을 구성한다. 특히 스톤의 소재와 컬러의 다양함으로 놀라운 효과를 연출해낸다.

### 낭만으로 가득한 빛나는 시간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메종의 키워드를 끊임없이 재해석해 선보이는 쿠쌍 드 까르띠에 위치는 찬란히 빛나는 이브닝 타임을 위해 고안되었다. 선레이 기법으로 마감한 관능적인 다이얼에 검 모양 블루 핸즈와 고전적인 로마자 인덱스 등 메종 특유의 요소로 미감을 채운 버전과 인덱스를 과감하게 없애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쥘 폴 세팅 버전이 라인업을 이끌며 하이엔드의 품격을 드러낸다. 메종의 주얼리 아틀리에에는 전통적인 그레인 세팅을 사용하지 않고, 케이스 안에 다이아몬드를 직접 세팅해



통합하는 트라이앵글 세팅을 선택했다. 그레인 요소가 제외된 이러한 시각적 효과는 스톤 고유의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하고 광채를 극대화한다. 서로 교차하며 격자 무늬를 만들어내는 골드 링크를 워치 안 요소로 통합한 점도 혁신적이다. 덕분에 케이스는 기존과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음과 동시에 되돌릴 수도 있다. 다채로운 크기와 컬러의 스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치는 훨씬 어려운 제작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유연함을 지닌 시계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제작에 훨씬 더 복잡함을 야기하기에 워치메이커는 이를 레진으로 봉인하는 등 제작에 더 많은 시간과 섬세한 마감 기술

로 이를 구현했다. 메종의 장인이 선보이는 혁신적이고 정교한 전문 세팅 기법을 통해 강렬한 텍스처가 살아난 이 개성 넘치는 주얼리 위치는 다채로운 스톤 세팅으로 라인업을 구성한다. 다이아몬드와 블랙 스피넬, 파라이바 투르말린과 차보라이트로 이뤄진 파벌라온이 장식적인 요소의 스타드가 되어 남다른 오라를 풍긴다. 쿠쌍 드 까르띠에 위치는 전부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2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날 수 있다. 케이스 전체를 다이아몬드나 컬러 스톤, 에메랄드, 투르말린, 차보라이트, 사파이어를 파베 세팅한 쿠션 형태의 버전으로 다이아몬드와 컬러 스톤의 다채로운 컬러가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순수한 우아함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시계를 제작하고자 하는 메종의 열망을 표한다.

1 블루 투르말린과 차보라이트,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그리고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조합으로 선보이는 쿠쌍 드 까르띠에, 20피스 한정 선보인다. 2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직접 세팅한 트라이앵글 세팅이 특징으로 주얼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3 브릴리언트 컷 파베 세팅으로 환율한 반짝임을 선사하는 피스. 블루 송아지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하이엔드의 품격을 보여준다. 4 볼륨감 있는 쿠션 형태의 시간 케이스를 다이아몬드 혹은 다채로운 유색 스톤으로 장식해 선보이는 쿠쌍 드 까르띠에.





1 탄생 1백 주년을 맞이한 탱크 슈투와즈를 재해석해 선보이는 까르띠에 프리베 라인업, 2 아시아 전통 사원의 건축학적 요소에서 영감을 얻은 케이지와 오픈워크 형태 스키텔레톤 기법이 앙상블을 이루는 1백 점 한정 피스, 3 로마지 인텍스와 블루 검 모양의 핸즈로 클래식한 면모를 지닌 옐로 골드 케이스 버전.

### Cartier Privé 까르띠에 프리베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은 메종의 아이코닉한 모델을 기념하는 컬렉션이다. 메종의 헤리티지를 끊임없이 재해석하며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오늘날의 미학적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의 매개체로서 컬렉터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클래식, 탱크, 상트레, 또는 탱크 아시메트릭, 클로쉬드 까르띠에 위치에 이어 올해는 '탱크 슈투와즈' 위치가 까르띠에 프리베 컬렉션의 여섯 번째 장을 장식했다. 올해 탄생 1백 주년을 맞은 이 독창적인 위치는 많은 모델에 영감을 주었지만, 2004년 이후 까르띠에 리브르 버전은

제외하고 선보인 적은 없기에 더욱 특별하다. 1922년 탄생한 '탱크 슈투와즈'는 당시 예술과 풍성한 여러 문화가 주얼리와 위치메이킹에 미친 영향에 대한 루이 까르띠에의 생각이 담긴 컬렉션이었다. 타 문화의 상징적 요소로 장식한 주얼리, 화장품 케이스, 파우더 콤팩트, 클락 등 극도의 섬세함을 보여주는 고귀한 오브제로 차별화를 꾀하기도. 문화, 예술, 기술, 미학 등 네



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메종의 기술력과 정밀해 선보이는 프리베 컬렉션은 올해 아시아 사원의 건축미와 기동을 받쳐 만든 환관 자봉(portics)의 기하학적 요소를 모티브로 한다. 다이얼을 감싸는 기하학 요소가 풍부한 래커 케이스가 특징인데, 오픈워크 형태의 스키텔레톤 타입에서 태양광 패턴과 로마자 인텍스로 시간을 알리는 클래식 다이얼 버전까지 다채롭게 선보인다.

### 역사와 혁신의 연결체

메종의 시그니처 컴플리케이션을 골드 케이스에 적용해 선보이는 이 타임피스에는 오픈워크로 작업한 다이얼에 아시아 전통 창문의 형태를 담고 있다. 기하학적인 케이스 사이로 스키텔레톤 무브먼트가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낸다. 아시아 전통 노하우에서 영감을 얻은 레드 & 블랙 및 블루 래커 컬러는 고급스러움과 입체적인 면모를 뽐낸다. 위치 속 9627 MC 스키텔레톤 무브먼트는 메종이 새로운 탱크 슈투와즈를 위해 개발한 것. 시간당 2만1천6회 움직이며, 3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한다. 각각 고유 번호를 부여해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웅장하고 이국적인 새로운 탱크 슈투와즈 위치는 가장자리를 베벨링 처리하고 수평 축을 지닌 커다란 크기의 세련된 플래티넘, 옐로 골드 또는 핑크 골드 소재의 시분 버전도 선보인다. 이 모델은 현재 메종의 가장 정제된 메카니컬 무브먼트인 430 MC 무브먼트가 시계를 움직인다.

는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스트랩 덕분에 뒤집어 착용할 수 있다. 전면은 위치가 되고, 후면은 브레이슬릿이 되는 완벽한 리버서블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듈화를 통해 까르띠에는 주얼리가 위치가 되고, 위치가 주얼리가 되는 것으로 위치와 주얼리의 경계를 허문다. 이러한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위치메이커는 특별히 개발한 스트랩을 중심으로 케이스를 구부리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간 세팅 시스템과 유사하게 재디자인하고 측면에 통합해 위치의 삼각형 스타일을 왜곡하지 않도록 구현했다.

### 혁신적인 트리아앵글 세팅

주얼리 노하우에 있어 모티브에 대한 기하학적 접근이 메종이 개발한 새로운 트리아앵글 세팅으로 더욱 강조된다. 전통적인 그레인 세팅을 적용하지 않고, 다이아몬드를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통합해 스톤 고유의 매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인데, 스톤을 지지하는 금속이 자취를 감추고 스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광채를 극대화한다. 컬렉션 피스들은 까르띠에의 아이코닉한 컬러 팔레트를 토대로 세 가지 버전으로 구성한다. 스피넬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랙 & 화이트 버전과 핑크 골드와 블랙 스피넬, 사파이어와 크리스프레이즈, 그리고 산호와 다이아몬드로 각기 대비되는 컬러 플레이를 보여주는 버전, 그리고 핑크 골드 메인으로 가닛과 블랙 스피넬, 문스톤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이 라인업을 이끈다.



1 핑크 골드를 바탕으로 브라운 킷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블랙 스피넬과 크리스프레이즈, 레드 산호석을 세팅한 브레이슬릿 위치, 2 트리아앵글 주얼 기법이 특징으로 영자식 구성으로 조화로운 스톤의 앙상블이 강렬한 매력을 선사한다, 3 전면으로는 워터로, 후면으로는 주얼리로 다채롭게 연출 가능한 피스.



### Cartier Libre 까르띠에 리브르

까르띠에가 선보이는 주얼리 위치는 단순히 착용했다는 표현보다는 '미학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는 편이 더 알맞은 표현인 듯하다. 매해 까르띠에 리브르 컬렉션에는 본인의 레퍼토리에 자유분방한 창의력을 더해 창조한 유니크 위치를 선보인다. 올해는 1930년대 배우 글로리아 스완슨이 착용한 매혹적인 록 크리스털 &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이



서 영감을 받은 까르띠에 리브르 모포시스가 메종의 자유분방한 창의성을 드러낸다.

### 유려한 곡선과 우아한 골드빛이 그리는 로맨틱 타임피스

원형 실루엣과 직사각형 링크의 대비에서 느껴지는 과감한 디자인이 특징인 리브르 컬렉션은 1960년대를 풍미한 클래식 스타일과 자체 제작 퀵스 무브먼트가 이루는 앙상블이 모던하고 강렬한 개성을 내뿜는다. '스케일' 장식을 인그레이브 한 브레이슬릿과 다이얼이 하나의 주얼리가 되어 매력적이고 편능적이다. 또 감각적인 타원 베젤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우아하게 장식했다. 리버서를 가능한 이 주얼리 위치

### Pasha de Cartier 파샤드 까르띠에

시대를 초월하는 면모를 지닌 파샤드 까르띠에 위치는 한층 다양해진 컴플리케이션으로 라인업을 이끈다. 1980년대에 첫선을 보인 이 위치의 디자인은 클래식하지만 극도의 현대적인 면모를 지닌다. 각 시대와 어우러진 것과 동시에 계속 진화하는 영민한 디자인과 끊임없이 창의성을 발휘하며 계속된 영감의 주체로서 산투스, 탱크, 베누아 등 클래식 위치와 함께 메종의 뚜렷한 정체성을 이어가며, 까르띠에 위치를 이끌어갈 차세대 컬렉션이다. 올해는 더욱 다채로워진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모델은 물론, 디자인적 관점에서 다

이얼 위 그리드 디테일과 착용자가 퍼스널라이징할 수 있는 참을 옵션으로 제안해 라인업을 한층 풍성하게 했다. 먼저, 디자인적 관점에서 새롭게 눈여겨볼 부분은 그리드 디테일이다. 이 개성 강한 위치에 매혹적인 텍스처 효과를 부여하는 이 디테일은 1943년 보호 그리드를 갖춘 방수 시계의 모습을 반영해 원형 케이스 안사각 형태로서 4개의 오버사이즈 아라비아숫자 인텍스를 더욱 강조한다. 메종은 그리드를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스프링을 탑재해 착용자는 때로는 그리드와 함께, 때로는 그리드를 빼서 연출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치를 착용할 수 있다. 그리드를 탑재한 새로운 버전은 지름 41mm 크기의 골드 케이스 버전과 지름 30mm 혹은 35mm의 베젤에 주얼리를 세팅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날 수 있다. 별도의 도구 없이도 착용자가 손쉽게 교체 가능한 퀵 스위치 시스템을 적용해 스트랩 선택에 폭넓은 옵션을 제안한다.

나만의 퍼스널라이징은 참 옵션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 넘치는 매력을 배가한다. 이는 메종의 역사적인 참여 두블르 씨 (Double C) 나 하트,



눈 모양 모티브를 더한 이 작은 펜던트는 파샤드 까르띠에 위치를 더욱 유니크하게 만들어준다. 전체를 핸드폴리싱한 대담하고 매력적인 상징들은 착용자가 자신의 시계를 퍼스널라이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요소가 된다. 크라운 커버에 끼울 수 있는 이 참은 전통적인 위치의 기능과 차별화하며, 국내에서는 하트 세이프 참을 만날 수 있다.

### 한층 다채로워진 컴플리케이션

라쇼드퐁의 까르띠에 매뉴팩처에서 개발한 문페이즈, 스키텔레톤, 플라잉 투르비용 버전의 다채로운 컴플리케이션이 컬렉션을 빈틈없이 채운다. 세 가지 아이코닉한 무브먼트를 탑재해 다양한 모델로 만날 수 있다. 별을 흠뻑만 듯한 미드나잇 블루 컬러 평면 친구도를 에워싼 정교한 원형 문페이즈의 움직임이 파샤드 까르띠에 위치의 대담한 디자인과 대비를 이룬다. 매뉴팩처의 1904 LU MC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전체 골드 혹은 스틸 버전으로 만날 수 있고, 골드나 스틸 프레임 다이얼 위 블루 아워 마커로 시간을 표시한다. 스키텔레톤 버전은 메인 플레이트와 브리지를 최소한으로 줄인 폴 스키텔레톤 버전으로 선보인다. 메종의 상징적인 스키텔레톤 무브먼트인 9624 MC 칼리버를 탑재했으며, 파샤드 까르띠에 위치의 아라비아숫자를 인텍스에 적용해 정체성을 잇는다. 4개의 오버사이즈 숫자부터 다이얼의 원형 안사각형에 이르기까지 전통을 거부하는 파샤드 까르띠에 위치의 과감한 사이즈와 디자인이 강렬함을 더욱 강조한다.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리미티드 에디션 화이트 골드 주얼리 버전과 케이스에 블랙 ADLC, 브리지와 헬



즈에 슈퍼루미노바 처리해 어둠 속에서도 명확한 빛을 발하는 스틸 버전, 두 가지로 구성한다. 투르비용은 시간 표시와 함께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시계학적 관점에서 컴플리케이션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복잡하고 매력적인 기계식 시스템임은 분명하다. 시와 분 표시 기능을 갖춘 플라잉 투르비용 9552 MC 칼리버는 까르띠에 파인 위치메이킹의 시그니처 컴플리케이션으로 파샤드 까르띠에 위치의 전반적인 미학적 코드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케이스 지름 41mm 사이즈 핑크 골드 소재 파샤드 까르띠에의 플라잉 투르비용 이 C 자를 새긴 케이스 덕분에 더욱 돋보인다. 기계식 메커니즘의 역작으로 불리는 크로노그래프는 짙은 그레이 컬러 다이얼이 오리지널 파샤드 까르띠에 위치의 강렬한 코드를 극대화한다. 크로노그래프 고유의 푸시 피스가 매력적인 이 모델은 까르띠에 매뉴팩처 오토크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904-CH MC로 동력을 얻으며, 47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한다. 문의 1566-7277 **에티어**

1 그리드와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2 크로노그래프 컴플리케이션으로 선보이는 파샤드 까르띠에, 3 퀵 스위치 시스템을 통해 브레이슬릿과 가죽 스트랩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4 다이얼과 톤톤을 이루는 다크 그레이 옐로 킷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파샤드 까르띠에 위치, 5 플라잉 투르비용 버전으로 까르띠에 매뉴팩처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9552 MC로 구동된다, 6 아광 물질인 슈퍼루미노바를 입혀 어둠 속에서도 명확한 가시성을 발휘한다.

# Elegant Revolution

비젤월드를 떠나 작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형식으로 워치 & 원더스에 인착한 샤넬. 올해는 더 혁신적인 기술력과 시넬 워치메이킹의 업그레이드된 노하우로 무장한 디제트로 워치들을 선보였다. 시넬 워치의 상징이자 아이콘이었던 J12 컬렉션부터 가브리엘 샤넬 스타일의 시그니처인 버튼을 가늠하는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컬렉션, 메종의 시그니처 컬러 다섯 가지 중 하나인 레드드를 테마로 한 오토로제 리레드 에디션 컬렉션까지, 시계 애호가부터 시넬 고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이번 2022년 샤넬 워치의 주요 컬렉션들을 소개한다.

## CHANEL

### J12

**J12 다이아몬드 투르비용** 이번 샤넬의 J12 워치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력과 제품이 바로 다이아몬드 투르비용 칼리버 5다. 시넬 워치의 첫 인하우스 플라잉 투르비용 무브먼트로 앞은 물론 케이스 백까지 섬세하게 마감한 노출 메커니즘에 샤넬 오토로제리 매뉴팩처 무브먼트의 시그니처인 사자 머리로 웅장함을 더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플라잉 투르비용 케이스 중앙에 올린 솔리테어 다이아몬드. 정확한 커팅 기술로 광채를 극대화한 이 다이아몬드는 초의 리듬에 맞춰 움직인다. 매트 블랙 세라믹에 스틸 또는 유광 블랙 세라믹, 18K 화이트 골드 소재로 만나 볼 수 있으며, 각 모델은 55개 한정판으로 제작한다.

**J12 바게트 다이아몬드 스타** 베젤은 물론 다이얼, 브레이슬릿까지 눈부신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디자인

으로 시넬 워치메이킹의 장인 정신을 담았다. 무려 약 3.51캐럿, 73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약 3.9캐럿, 4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베젤, 약 2.75캐럿, 1백68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18K 화이트 골드 다이얼까지. 브레이슬릿에는 약 24.99캐럿, 5백6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푸시-다운 크라운에는 약 0.1캐럿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에는 12개 한정판이라는 의미인 Limited to 12가 새겨져 있다.

**J12 블랙 스타** 바게트 컷의 진수를 보여주는 샤넬에서 내놓은 또 하나의 역작. 다이아몬드와 함께 블랙 세라믹을 사용해 샤넬의 컬러인 블랙을 세련되게 표현한 위치를 탄생시켰다. 심플하고 모던한 감성은 유지한 채 입체적인 실루엣이 이색적인 느낌을 준다. 케이스에는 바게트 컷 세라믹 22개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55개를 세팅했으며, 브레이슬릿에는 바게트 컷 세라믹 3백42개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1백60개(약 7.51캐럿)를 세팅했다. 푸시-다운 크라운에는 다이아몬드 약 0.15캐럿 1개를 세팅해 완성했다. 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34개(약 0.26캐럿)를 세팅한 블랙 오실레이팅 웨이트를 탑재했다. 시리얼 넘버가 들어간 12개 한정판으로 제공된다.

**마드모아젤 J12 마드모아젤 J12 라 파우자** 프랑스 리비에라에 위치한 샤넬 여사의 빌라 라 파우자(La Pausa) 정원에서 찍은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새롭게 해석한 모델로 견고한 블랙 세라믹과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베젤에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46개(약 5.46캐럿)를 세팅했으며 블랙 레커 다이얼 속에는 브레튼 톱과 세일러 펜츠를 입은 마드모아젤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마드모아젤 J12 컬렉션 최후로 한정판 올 블랙 버전에 칼리버 12.1을 탑재했으며 55개 한정판으로 판매한다.



1. J12 다이아몬드 투르비용. 2. 첫선을 보인 샤넬의 투르비용 워치 제작 모습. 3. J12 다이아몬드 투르비용의 케이스 백. 4. J12 다이아몬드 투르비용의 옆모습. 5. J12 가브리엘 칼리버 3.1. 6. 마드모아젤 J12 라 파우자를 착용한 모델. 7. 마드모아젤 J12.XS. 8. J12 블랙 스타. 9. J12 바게트 다이아몬드 스타를 착용한 모델.

**마드모아젤 J12.XS** 견고한 블랙 세라믹에 18K 화이트 골드를 매치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구성했다. 블랙 레커 다이얼에 플랜지에만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24개(약 0.48캐럿)를 세팅했으며 브레이슬릿의 가운데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16개(약 1캐럿)를 세팅해 은은한 우아함을 부여했다. 키포인트는 케이스에 장난스럽게 매달린 마드모아젤 샤넬 캐릭터. 화이트 골드와 블랙 레커 소재 장식으로 표현했으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강조한 투톤 스트랩을 엮었다.

**J12 가브리엘 칼리버 3.1** 블랙 컬러 의상에 즐겨 하던 진주를 착용한 가브리엘 샤넬의 아이코닉한 실루엣을 다이얼에 올린 워치. 견고한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로 우아함을 더했다. 마치 다이아몬드 프레임 액자 속에 있는 듯한 오픈워크 다이얼로 가브리엘 샤넬의 모습을 더욱 고귀하고 신비롭게 만들며 시간의 수호자 같은 그녀의 모습을 표현했다.



## RED EDITION COLLECTION

**J12 X-RAY 레드 에디션** 2020년 J12의 탄생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J12 X-RAY가 2022년 레드 에디션으로 탄생했다. J12의 실루엣에는 변화가 없으나 샤넬의 시그니처 컬러 중 하나인 레드드를 강조했다. 크리스탈 사파이어 케이스에 바게트 컷 루비 46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고정 베젤로 레드 포인트를 주었으며, 바게트 컷 루비 인디케이터를 세팅한 크리스탈 사파이어 다이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투명 케이스를 통해 보이는 무브먼트는 오토로제리의 규칙에 따라 브리지와 톱니바퀴로 수놓은 입체적인 레이스 조각의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12개 한정판.

**보이·프렌드 스칼레톤 레드 에디션** 2018년 처음 제작한 보이·프렌드 실루엣에 샤넬의 시그니처 컬러 중 하나인 레드드를 부여했다. 레드 엠보싱 레더 스트랩은 2.55백의 라인을 떠오르게 하며 투명 케이스 속 무브먼트의 레드드는 파워드 베이지 골드 컬러와 어우러져 궁극의 레드 립 같은 느낌을 준다. 칼리버 3을 탑재해 브리지와 톱니바퀴로 수놓은 입체적인 레이스 조각 같은 형태로 워치 아래로 피부가 살짝 비쳐 보이는 것이 더 매력적이다. 18K 베이지 골드 케이스에 바게트 컷 루비 38개를 세팅한 베젤이 돋보이는 버전과 투명 크리스탈 사파이어 케이스와 베젤에 바게트 컷 루비 5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크라운이 포인트를 주는

보이·프렌드 스칼레톤 X-RAY 레드 에디션, 두 가지로 출시하며 각 10개, 1백 개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 MADEMOISELLE PRIVÉ BOUTON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워치** 샤넬 공방 위치의 상징이 된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워치는 이번에 네 가지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인다. 까멜리아 모티브로 장식한 버튼으로 버킨디 벨벳 소재 컵 브레이슬릿을 잠글 수 있는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까멜리아 모티브 워치부터 가브리엘 샤넬이 어린 시절을 보낸 오바진 수녀원의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영감을 받은 모티브의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오바진 모티브 워치, 투르말린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비잔틴 모티브를 더한 버튼에 핑크 킥 레더 소재 컵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비잔틴 모티브 워치, 진주와 다이아몬드로 만든 매듭 모티브로 장식한 버튼에 르사주에서 자수를 넣은 실크 오간자 소재 컵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매듭 모티브 워치까지, 전부 20개의 한정판으로 만나볼 수 있다.

## 마드모아젤 프라베 코로만텔 롱 네크리스

샤넬의 패션 감각과 워치 메이킹 기술이 만난 마드모아젤 프라베 코로만텔 롱 네크리스는 18K 베이지 골드로 만든 미니어처로 장식한 오닉스 다이얼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0개를 세팅했다. 오닉스 다이얼의 뒷면에는 18K 골드로 가브리엘 샤넬의 옆모습을 조각했다. 이 롱 네크리스는 주얼리 워치로서 하나의 아트피스는 같은 섬세한 디테일을 보여준다.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골드 펄 모티프 세트** 샤넬의 주얼리 워치 세트. 올해 출시한 세 가지 액세서리로 구성된 주얼리 워치는 골드 펄을 중심으로 디자인해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담았다. 반구 형태의 진주를 세팅한 버튼 모티브로 롱 네크리스부터 링, 단단한 컵 브레이슬릿을 장식했다. 전부 5개의 한정판으로 제작되었다.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에디터 성영민**



1. J12 X-RAY 레드 에디션을 착용한 모델의 모습. 2. J12 X-RAY 레드 에디션. 3. J12 X-RAY 레드 에디션의 케이스 백. 4. 보이·프렌드 스칼레톤 레드 에디션. 5. 보이·프렌드 스칼레톤 레드 에디션의 케이스 백. 6.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워치 까멜리아 모티브 버전. 7.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비잔틴 모티브 워치. 8. 마드모아젤 프라베 코로만텔 롱 네크리스 착용 모습. 9.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골드 펄 모티프 세트 중 링. 10. 마드모아젤 프라베 부통 골드 펄 모티프 세트 중 네크리스.



# Big Innovation

IWC의 혁신과 함께해온 파일럿 워치 탐진. 이번 2022 워치스 & 윈더스에서는 IWC만의 신소재와 컬러에 집중했다. 전문적인 워치메이킹 노하우로 탄생한 IWC 세라믹에 고급스러운 컬러감으로 완성한 워치부터 세라믹과 티타늄의 장점만 합해 만든 신소재 '세라티늄'으로 제작한 워치까지, 다양한 디자인적 혁신을 보여준 IWC의 새로운 워치들을 소개한다.

## IWC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탐진 '우드랜드' 에디션

세라믹 시계 제작에 남다른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IWC. 1986년 처음 세라믹 시계를 제작하기 시작한 이후 2019년 샌드 컬러인 모하비 데저트 에디션을 거쳐 올해 세 가지 컬러를 추가했다. 그중 은은한 광택을 내는 짙은 녹색의 '우드랜드' 워치는 파일럿 워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국 해군 파일럿의 비행복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고급스러운 그린은 세라믹 케이스와 다이얼, 스트랩 등에 사용했으며 푸셔 및 케이스 백은 매트 블랙 세라티늄을 적용해 내구성을 강화했고 숫자 및 아워 마커는 더 밝은 색채로 완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칼럼 휠 방식으로 우수한 견고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IWC 자체 제작 69380 칼리버로 구동하며 자기장의 영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하기 위한 연철 내부 케이스를 장착했다. 케이스 백에 아이코닉한 탐진 로고가 매력적이다. 전 세계 연간 1천 개 한정 수량으로 생산한다.

##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탐진 '레이크 타호' 에디션

우드랜드와 함께 선보인 컬러 세라믹 워치 세 가지 중 하나인 레이크 타호 에디션은 캘리포니아와 내바다주 경계에 자리한 타호 호수에서 영감을 받아 명명되었다.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이트 컬러와는 조금 다른 무드를 풍기는 이유는 바로 IWC만의 특별한 소재인 세라믹의 질감과 섬세한 제조 공정을 통해 얻은 매력적이고 묘한 색감에 있다. 다이얼과 프린팅, 핸즈, 발광 소재, 날짜 디스플레이, 엠보싱 처리된 화이트 러버 스트랩 등 모든 요소로 케이스 컬러와 완벽한 조화를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는 매칭 작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완성된 레이크 타호 에디션의 다이얼은 가독성 높은 블랙으로 처리했으며, 크라운과 크로노그래프 푸셔에는 말끔하게 폴리싱한 스틸을 사용했다. 이 역시 연간 1천 개만 생산한다.

##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탐진 세라티늄

세라티늄은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의 장점과 가볍고 견고한 티타늄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IWC는 장장 5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이 소재를

완성했다. 세라티늄의 특성 중 하나는 고유의 희미한 광택을 띠면서 블랙에 가까운 짙은 컬러를 내는 소재적 특징으로, 그 자체로 세련된 IWC 블랙 컬러를 완성한다. 이를 통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절대 벗겨지지 않는 단단한 내구성까지 갖출 수 있었던 것. 41mm 케이스에 크라운과 크로노그래프 푸셔, 스트랩 바클까지 세라티늄을 사용해 통일감을 주었으며, 블랙 러버 스트랩으로 스포티함을 부여했다. 4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69385로 구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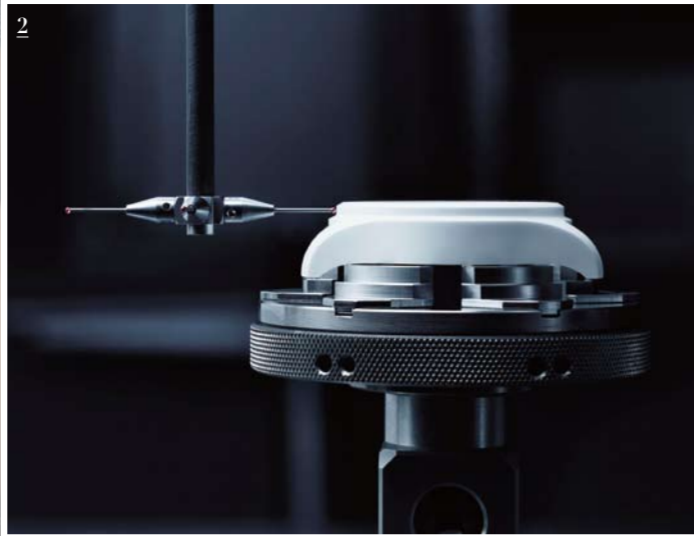
## 빅 파일럿 워치 43 탐진

2012년부터 블랙 세라믹 소재로 출시해 온 빅 파일럿 워치는 IWC 탐진 시리즈의 주요 에디션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클래식 모델을 최초로 인체 공학적인 43mm 케이스로 출시했다. 빅 파일럿 워치 43 탐진은 블랙 산화 지르코늄 세라믹, 티타늄 케이스 백, 블랙 다이얼

## 빅 파일럿 워치 43 탐진

및 블랙 핸즈를 장착해 가독성을 높이고 케이스 백에 세라믹을 사용해 더 강력한 긁힘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IWC 자체 제작 82100 칼리버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마모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세라믹으로 제작한 컴포넌트는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적용해 최대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또 IWC의 시그니처인 Easy-CHANGE®를 적용해 그린 텍스타일 스트랩으로도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다. 100m 방수를 지원한다. 문의 02-3440-5876 **에어 킹**

1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탐진 '우드랜드' 에디션의 제작 모습. 2 탐진 세라티늄의 섬세한 공정 모습. 3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탐진 '레이크 타호' 에디션. 4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41 탐진 세라티늄. 5 43mm로 선보이는 빅 파일럿 워치 탐진. 6 파일럿 워치 크로노그래프 탐진 '우드랜드' 에디션.



# VACHERON-CONSTANTIN

**트래디셔널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씬** 하이 캘린더를 자랑하는 워치메이킹 기술력에 클래식한 우아함을 한 스펀 더한 바세론 콘스탄틴의 반가운 여성 워치 컬렉션. 인허우스 칼리버 1120 QP로 구동하는 이 제품은 퍼페추얼 캘린더와 문페이즈 기능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직경 36.5mm에 두께 8.43mm 케이스로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여성 워치 중에서도 가장 얇고 웨어러블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18K 핑크 골드와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두 가지 버전의 케이스에 17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베젤은 우아함을 극대화하며 특히 화이트 골드 케이스 버전에는 블루 그레이 컬러를 입힌 머더오브필 다이얼은 신비스러운 매력을 부가한다. 최초로 별도의 도구 없이 푸시 버튼을 타치하는 것으로만 교체 가능한 스트랩을 장착해 편리함을 추가했으며,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고구한 워치메이킹 기술을 엿볼 수

있다. **패트리모니 셉프 와인딩** 200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절제되고 세련된 워치메이킹 미학으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해온 패트리모니 컬렉션. 이번 새로운 모델은 색다른 차분함과 절제되어 또 다른 매력을 잔한다. 직경 36.5mm 케이스에 새롭게 디자인한 동침 다이얼의 곡선이 돋보인다. 다이얼의 컬러감이 독특하며, 밝은 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라데이션이 매력을 배가한다. 아워 마커 사이의 마넨 트랙에는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6시 방향 날짜 디스플레이에서 정교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이트 골드에 블루 다이얼과 스텝 버전, 핑크 골드에 핑크 다이얼과 스텝 버전으로 나누며 베젤에 72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까지 총 4개의 파스로 만날 수 있다.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2006년부터 고급스러운 플래티넘 소재로 제작된 특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구성된 역설 런스 플래티넘 컬렉션을 선보여온 바세론 콘스탄틴. 이번엔 한정 생산되는 시그니처 타임피스인 은은한 색인 컬러 다이얼과 플래티넘 케이스를 결합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크로노그래프 마넨 카운터에는 중앙 부분에 정교한 스페셜 마넨 기함을 적용한 동침 세팅 브러싱 링으로 차별화했고, 퍼페추얼 캘린더의 떠오르는 달까지 폴리싱 처리해 디테일을 실었다. 18K 5N 핑크 골드로 제작해 한쪽은 샌드 블라스트 마감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폴리싱 처리한 각 면을 담아 특색 있게 표현한다. 권위 있는 인허우스 칼리버 1142 QP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1670-4606



# ROLEX

**오이스터 퍼페추얼 에어-킹** 크라운 가드와 직선형 측면을 갖춘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케이스가 특징인 차세대 오이스터 퍼페추얼 에어-킹. 최초로 오이스터록 세이브티 클라스트를 장착했으며 분 눈금 5 알에 0을 추가해 디스크를 레이드 더 균형 있게 재배치했다. 가독성을 위해 크로마이트 디스플레이를 최적화했으며, 시그니처와 12시 방향의 삼각형 시가 표시는 강렬한 푸른빛이 더 오래 지속되는 신소재의 아랑으로 채웠다. 워치메이킹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무브먼트인 칼리버 3230으로 구동하며 일상적인 착용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최상급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 세련된 블랙 다이얼과 스틸 브레이슬릿의 조화가 인상적. **오이스터 퍼페추얼 GMT-마스터 II** 완전히 새로워진 버전의 이번 새 모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계 케이스 왼쪽에 자리한 크라운과 크라운 가드다. 날짜 표시창과 사이클롭스 볼록렌즈도 9시 방향으로 옮겼다. 오이스터 스틸로 제작한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을 매치했으며, 그린과 블랙 세라믹 소재인 투톤 모노블록 세라믹로 베젤을 장착해 독특한 매력을 더한다. 워치메이킹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무브먼트 칼리버 3285를 장착했으며 시, 분, 초, 날짜 및 24시간 형식의 추가 시나리오를 표시할 수 있다. 문의 02-2112-1251

칼리버 3230

# JAEGER-LECOULTRE

**에트모스 히브리시 메카니카 칼리버 590** 직경 215mm, 높이 253mm의 실린더형 글라스 캐비닛 형태의 에트모스 시계로, 4년 이상의 연구 개발 기간이 소요된 가장 정교한 워치다. 에트모스 전담 공방인 에트모스 아틀리에에서 제작했으며, 지구와 태양, 달의 주기를 최첨단 실재에 가장 정교하게 구현했다. 축을 중심으로 자회하는 지구를 정교하게 표현하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궤도를 결합했으며, 조디악 캘린더에 맞춰 각 달과 계절을 표시한다. 2개의 층을 이루는 페리퍼럴 링으로 구성된 워치의 페이스에는 아워 및 마넨 트랙과 계절의 명칭으로 장식했으며, 프레임 안에 레이아웃 별자리를 그린 투명 블루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다이얼 중앙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폴리싱 처리된 골드 메달 스테이퍼를 새겼다. **마스터 히브리시 아티스틱 칼리버 945 갤럭시** 그랑 컴플리케이션 칼리버 945를 재해석한 타임피스로 그랑 메종의 예술적 창의성과 탁월한 장시 공예, 그리고 천재적인 기술력을 담았다. 숙련된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채색하고 다양한 층으로 만들어 천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아름다운 다이얼부터 사운드를 인도한다. 그리저 에-벨 기법을 통해 별자리 지도를 완성했으며 키아로스쿠로 효과로 입체적인 느낌까지 준다. 1항상성 다이얼을 한번 회전하고 발라드주에서 본 발함을 과 매 순간 변화하는 북반구 별자리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 케이스는 18K 핑크 골드도 마무리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문의 1670-1833 **에디트** **성형인**





레이디아펠 에르 플로렐



퐁텐 오오와즈 오트마퐁

주요의 이 타인피스는 온 댈덴에 에-메이선과 레 트로그래이드 타임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제품이다. 높이 44.15cm, 너비 41.13cm의 동형 케이스 안에는 장식용 스톤 50개를 구상해 변화하는 파도의 디저레온 색상과 반투명하게 반짝이는 광채를 표현한 연꽃이 자리한다. 그 위에 특별한 기술로 만든 에-펠로 구획한 열은 핑크와 보라색 꽃잎, 오묘한 녹색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한 잎이 자리한다. 그와 함께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섬세하게 완성한 장미꽃까지 워터해 자연을 다채롭게 살감 나게 묘사했다. 워터의 움직임 위에 자리 잡은 한 쌍의 새는 옐로 골드와 블루 및 퍼플 파이어, 에메랄드, 차보라이트 가넷 등 다양한 원석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게 표현해 빈클립프 이멜 메종의 예술적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은 베이스 측면에 위치한 것털의 정전적 움직임과 12시가 되면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최대 5회 연속으로 작동되며 약 1분 동안 오트마퐁이 작동해 낭만적인 장면을 선보인다. 매개-컬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89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1668-1906



레이디아펠 에르 플로렐

## VAN CLEEF & ARPELS

**레이디아펠 에르 플로렐** 1751년 칼 폰타나가 출간한 책 '필로소피아 보테-나'에 등장한 플로렐 클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워터랩 섬세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찬 다이얼 디자인부터 감동을 선사한다. 3차원의 입체적인 다이얼로 12개의 화관을 여담으며 시인의 흐름을 표현하는 방식. 60분마다 다이얼에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꽃이 열리고 닫히며 시간을 보여준다. 지름 38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베젤과 블루 컬러의 플라워 다이얼로 이루어진 오리지널 모델과 로즈 골드 케이스에 레드와 핑크 플

리우로 장식한 다이얼이 돋보이는 스위치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다. **레이디아펠 발레리나 앙상페** 2013년에 탄생해 제네바 시계 그림프에서 여성용 컴플리케이션 워치 부문을 수상한 메종 대표 워치. 옐리는 화이트 골드와 로즈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우아함과 현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담았다. 지름 40mm 사이즈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파베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과 로즈 골드 케이스에 사니 퍼플 알라게이트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베젤은 모두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으며 다이얼 한가운데 자리한 발레리나의 얼굴과 헤어, 옷에다 다이아몬드를 배치해 반짝임을 더했다. 다양한 소재와 컬러로 만든 발레리나의 투투는 정교한 필처지며 예술적 감성과 재미 요소를 선사한다. **퐁텐 오오와즈 오트마퐁** 워치라기보다 하나의 오브제이자 이티피스 같은 비



레이디아펠 발레리나 앙상페



레이디아펠 발레리나 앙상페



엑스칼리버 모노 밸런스어 (RODBEX0864)



엑스칼리버 모노 밸런스어 (RODBEX0963)



엑스칼리버 워터의 기사 모노투르비용

## ROGER DUBUIS

**엑스칼리버 모노 밸런스어** 도미네 헨드, 트리플 러그, 플루티드 베젤과 로만 인덱스의 앙상블이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는 엑스칼리버 모노 밸런스어는 로저두부르를 대표하는 컬렉션이다. 한층 더 높은 치원의 정밀한 성능을 위해 밸런스 휠 관성을 2배로 늘림으로써 안정성을 개선하고 충격에 대한 강도를 높였다. 다이아몬드로 코팅한 실리코 소재의 팔레트 스트랩과 새로운 윤활유는 이스케이프먼트 휠의 모양을 최적화해 더 나은 효율성과 에너지를 높인 칼리버 RD72050을 장착했다. 외관은 핑크 골드 케이스에 탄스텐으로 마감해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기어냈다.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과 핑크 골드 버전으로 선보인다. **엑스칼리버 워터의 기사 모노투르비용** 여덟 번째 에디션인 아사왕 전설 속 세계의 핵심인 모두가 동등한 행복을 표현했다. 중력을 받아들이는 방패가 되어 왕국을 보호하는 의무에 자신을 대하는 12명의 기사처럼,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메종의 여정은 밸런스 휠의 직경을 키워 안정성을 높이고 중력의 영향에 대한 무브먼트의 강도를 낮춤으로써 실현했다. 원형 디자인에 어우러지는 2개의 골드 블록이 중앙에서 완벽하게 회전하는 디스크와 함께 시, 분의 위치를 표시하고, 여기에 무늬로 글라스로 조각한 반투명한 보라색 블록은 마치 모노투르비용 주변에 떠 있는 듯한 구조로 설계되어 무늬로 글라스 블록 하위로 조각된 더블 색션 클렌저와 조화를 이룬다. 3시 방향에 있는 2개의 위치와 디자인의 일관성을 지키고자 설정 시스템을 2시로 분산해 데이터를 놓치지 않았다. 예술적 컬렉션의 정수와 시그니처 컴플리케이션의 조화를 보여주는 이 타인피스는 오직 8점 한정 생산한다. 문의 02-3479-1401

## PANERAI

**뉴 샵머저블** 샵머저블 컬렉션은 고유의 DNA를 고수하며 진화를 거듭해온 파넬리아를 대표하는 다이아 버전이다. 특히 받은 크라운 보호 장치를 비롯해, 수심 300mm 방수 기능, 잠수 경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등방향 회전 베젤, 그리고 슈퍼루미노버로 채운 메탈릭 플라케도 다이아 버전에 없이는 안 될 생존 도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컬렉션은 상징하는 P.900 칼리버를 탑재했으며, 세 가지 모델 모두에 파넬리아의 지속적인 친환경 노력을 반영했다. 기본 스트랩에는 재활용 소재를 30% 사용했으며, 샵머저블 쿼터타이프로 리안의 모든 스트랩과 마진기자로 교체용 스트랩에는 재활용 패브릭을 68% 활용했다. 티타늄보다 가볍고 내부식성이 뛰어난 카본피복 케이스에 적용해 수해를 상충하는 딥 블루 컬러를 다이얼에 적용한 버전과 스틸 케이스에 블랙 다이얼을 장착한 버전, 화이트 컬러 다이얼에 말리트리 그린 톤의 스트랩을 매치한 샵머저블 쿼터타이프로 바인드 세 가지 모델이 리안업을 이룬다. **소재의 진화 - eSteel™** 파넬리아 샵머저블 쿼터타이프로 eSteel™은 파넬리아의 디자인 코드와 기술적 완성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한 모델이다. 소재 중 72%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으며, 적용한 eSteel 소재는 물리력 구조, 내부식성 등 그 물성이 일반적인 스틸 소재와 같다. 하우스를 대표하는 P.900 칼리버를 탑재했으며, 마진기자로 수심 300m 방수 기능과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기본 스트랩은 재활용 패브릭 소재로 만든 패브릭 스트랩과 교체용으로 재활용 라바 소재를 함께 제공한다. 각 모델에는 스트랩 교체용 공구와 버클 부리용 드라이버가 포함된다. 문의 02-6905-3394



PAM01287 샵머저블 쿼터타이프로 eSteel™



PAM01232 샵머저블 쿼터타이프로 카본피복™ 블루 이터스



PAM01226 샵머저블 쿼터타이프로 바인드



아쓰르 망 보이쥬



캘리

## PIAGET

**알티플라노 울타메이트 컨셉** 2018년 처음 선보인 울트라-스 콘셉트의 워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번의 도약을 통해 진화된 모습을 선보인다. 대부분의 시계가 가진 4개 층을 하나로 결합한 부품을 제작해 두께가 불과 2mm에 불과한 이 워치가 탄생했다. 코발트 기반 첨단 기술 합금으로 제작한 지름 41mm 케이스에 샌드 블라스트 처리한 다크 슬레이트 블루 PVD 베이스 플레이트를 매치했으며, 케이스 백, 베젤, 러그는 모두 사틴 브러싱 처리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여기에 1.5mm의 얇은 다크 블루 알라게이트 스트랩을 장착해 디자인적 조화를 이루었다. 4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리암 화이트 갈라** 브랜드의 아이콘 워치인 리암 화이트 갈라 하이 주얼리 워치. 옐리는 더욱 빛나는 디자인과 대체로운 다이아몬드 컷의 조합으로 화려함을 표현했다. 피아제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바네징 베젤에 컬러풀한 차보라이트와 다이아몬드로 그라데이션 세팅해 눈길을 사로잡으며, 우아한 녹색의 알라게이트 다이얼에 스노 세팅한 다이아몬드로 매력을 배웠다. 지름 32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마치 오토 쿼터 드레스의 페브릭처럼 보이는 핑크 데코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스타일링 스타일을 추구했다. 매뉴팩처 오트마퐁 무브먼트 501P1로 구동되며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1668-1874 에터 **상영민**



리암 화이트 갈라



알티플라노 울타메이트 컨셉

알티플라노 울타메이트 컨셉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존

## MONTBLANC

**1858 지오스피어 크로노그래프 제로 옥시존** 제로 옥시존이라는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듯 시계 내부를 무산소 상태로 밀폐해 높은 내구성과 장밀도를 보여준다. 또 영하 50°C라는 극한의 온도에서도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특별한 윤활유를 사용해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 장비를 작동시켜야 하는 탐험가들에게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산악 기의 다양한 작업의 경과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워치로, 새롭게 장착한 칼리버 MB 29.27은 0.1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시간의 정확성을 높이며, 2시 방향의 푸셔를 통해 시차와 정지, 4시 방향의 푸시 피스 크로노그래프를 원점으로 리셋, 재구동하는 플라백 기능도 갖췄다. 여기에 남반구와 북반구로 구분한 회전 지 구분 모양의 인디케이터와 24시간 스케일, 그리고 낮/밤 인디케이터와 디스크로 표시하는 날짜창 등으로 산악기를 위한 장비의 역할을 모두 갖췄다. **1858 아이스드 시 오트마퐁 데이터** 몽블랑 1858 컬렉션의 DNA를 고수하며, 가장 진보적인 기술을 적용한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시 오트마퐁 데이터'는 첫 번째 워치로서 리안업을 한층 강화했다. 지름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담긴 무브먼트 MB 24.17은 다이아몬드 워치에 필수적인 기능적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스포츠 시계가 아닌 ISO 6425 표준에 부합한 인증을 받은 다기능 시간 계측기로서 전문 장비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 다이아몬드 워치로서 어둠 상태에서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렌즈와 인덱스 및 12시 방향의 도트에 화이트 슈퍼루미노버를 얹어 어둠 속에서도 명확한 가시성을 발휘한다. 방수와 방화 이데를 통합하는 스퀘어다이아몬드 3D 양각한 케이스 백으로 제공한다. 문의 1670-4810



1858 아이스드 시 오트마퐁 데이터

## A. LANGE & SÖHNE

**오디세우스 타이틀**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위해 고안한 오디세우스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 무브먼트 L.155.1 디토크메릭을 탑재했다. 레저 및 스포츠 환경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역동적인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방수 기능을 갖추면서도 하우스 최고로 타이틀 소재를 적용해 스포츠 워치로서 실용적이고 미학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캐주얼한 풍격의 타인피스로 2백50점 한정 출시한다. 대형 글자로 표시한 요일 및 날짜 디스플레이와 마인 스케일로 장식한 이르즈미테 컬러의 플랜트 링은 새도 갠을 만들며 영리한 디자인을 완성하며, 5분 단위로 새겨진 블랙 컬러 이리버이숫자 사이에서 레드 컬러로 프린트된 숫자 60이 컬러 포인트를 더한다. 완전히 와인딩했을 때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리처드 링에 마인 리피터** 꾸준한 차임 메카니즘을 탑재한 특별한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여온 하우스는 올해 전통적인 시움드 형상을 기반으로 한 리처드 링에 마인 리피터를 선보였다. 케이스 백에는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적용해 리피터 프로세스가 작동하면 미러 폴리스 처리한 해마가 무브먼트 주변을 감싼 27의 공을 치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며 소리 사운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감성하는 재미도 제공한다. 케이스 소재인 플래티넘의 음향 특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작업으로 조율한 공을 사용했으며, 덕분에 명료하고 분명한 깊은 시움드를 경험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 L.122.1은 위블러시 스프링을 탑재한 수작업 완성의 인그레이빙 밸런스 로를 포함한다. 50시간 한정 에디션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479-1349 에터 **이유이**



리처드 링에 마인 리피터



오디세우스 타이틀

# Welcome to New World

자유로운 펑크 정신과 젯셋족의 유쾌한 에너지가 어우러진, 가장 동시대적인 취향을 경험할 수 있는 MCM의 뉴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1960~70년대를 찬란하게 수놓았던 독일 만화의 모더니즘, 진보주의, 혁신적인 르네상스 문화를 표방하며, 자유분방하고 칸털파리한 아이덴티티를 이르는 독일 럭셔리 패션 하우스 MCM이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3주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에서 팝업 스토어를 연다. 공간 설계에는 MCM 콘스트프로젝트부터 하우스와 다채로운 협업을 이룬 최도진 작가가 참여해 낭만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재해석해 황홀한 상상력이 맘껏 발휘된 공간으로 초대한다.

## From Berlin to Seoul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MCM 하우스만의 세계를 구현한다. 하우스의 뉴 스쿨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 공간에서는 P+M 컬렉션과 MCM의 세 가지 동물 캐릭터 하루, 헨리, 카이자가 돋보이는 H+K 라인업을 시작으로 매주 다른 한정판 제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뿐 아니다. MCM과 크룩스가 협업해 선보이는 특별 에디션, 새로운 스니커즈 컬렉션인 스카이 스트림 라인과 데님 시리즈, 그리고 M PUP 등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다가올 예정. 이어 반려동물용 모티브로 한 컬렉션과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MF와 협업해 완성한 라인 등 다양한 제품군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향수와 인기 가죽 인형, 캔들, 디퓨저 등 MCM의 대표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동안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 New School Luxe

MCM 하우스의 자유로운 펑크 정신과 취향을 경험할 수 있는 팝업 부티크에서는 NFT 아트를 활용한 오픈 행사도 준비했다. MCM은 팝업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한대미술 작가 전형삼의 대체 불가 토큰(NFT) 아트 프로젝트 '스핀(SPIN)'과 함께 NFT 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MCM은 사전에 NFT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MCM x SPIN 공모전 당선작과 환한 아티스트 레디(Reddy)의 이트워크를 양면에서 프린트한 소포백, 티셔츠 등 이티피소드 준비했다. 오픈 당일인 6월 17일에는 레디가 스프레이를 통해 디자인한 NFT 작품 공개를 위해 직접 방문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갖는 공간은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차원이 다른 쇼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포백은 MCM 멤버십 가입 고객에게, 티셔츠는 전 구매 고객에게 제공한다. 다양한 한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픈 당일인 17일부터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 호텔 숙박권, MCM 제품 등을 증정하는 럭키 풀타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팝업 스토어 운영 기간 내 7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큐빅 모노그램 우산을 증정한다. MCM이 전하는 밝고 유쾌한 감성의 에너지를 경험하고 싶다면, 마치 전시회 같은 이 초대에 응해보는 건 어떨까? 문의 02-2194-6700 에디터 **이주이**



1 한대미술 작가 전형삼의 크리에이션으로 선보이는 NFT 아트 프로젝트 '스핀(SPIN)', 2 팝업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는 P+M 컬렉션, 3 프랜차이즈를 모티브로 한 M PUP 라인, 4 크룩스와 협업해 선보이는 리미티드 에디션 라인, 5 MCM 하우스가 추구하는 새로운 스타일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신세계백화점 4층에 위치한 팝업 스토어 전경.

© sponsored by MCM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팝업 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 셀렉션. (왼쪽부터) 하우스의 상징적인 스타크 백백을 모티브로 한 보틀에 담아 선보이는 향수. 라즈베리와 제스민, 그리고 앰버와 우드가 어우러진 자유로운 분위기의 영혼을 품은 향. 50ml 9만9천원. 비건 왁스로 제작한 MCM 섀티드 캔들 1023천원. MCM 코낙 비제투스 코티드 캔버스로 제작한 미니 사이즈 프랜차이즈 인형 5만9천원. MCM 리드 디퓨저 140ml 11만 5천원. 모두 **MCM**. 문의 02-2194-6700 에디터 **이주이**



포토 박기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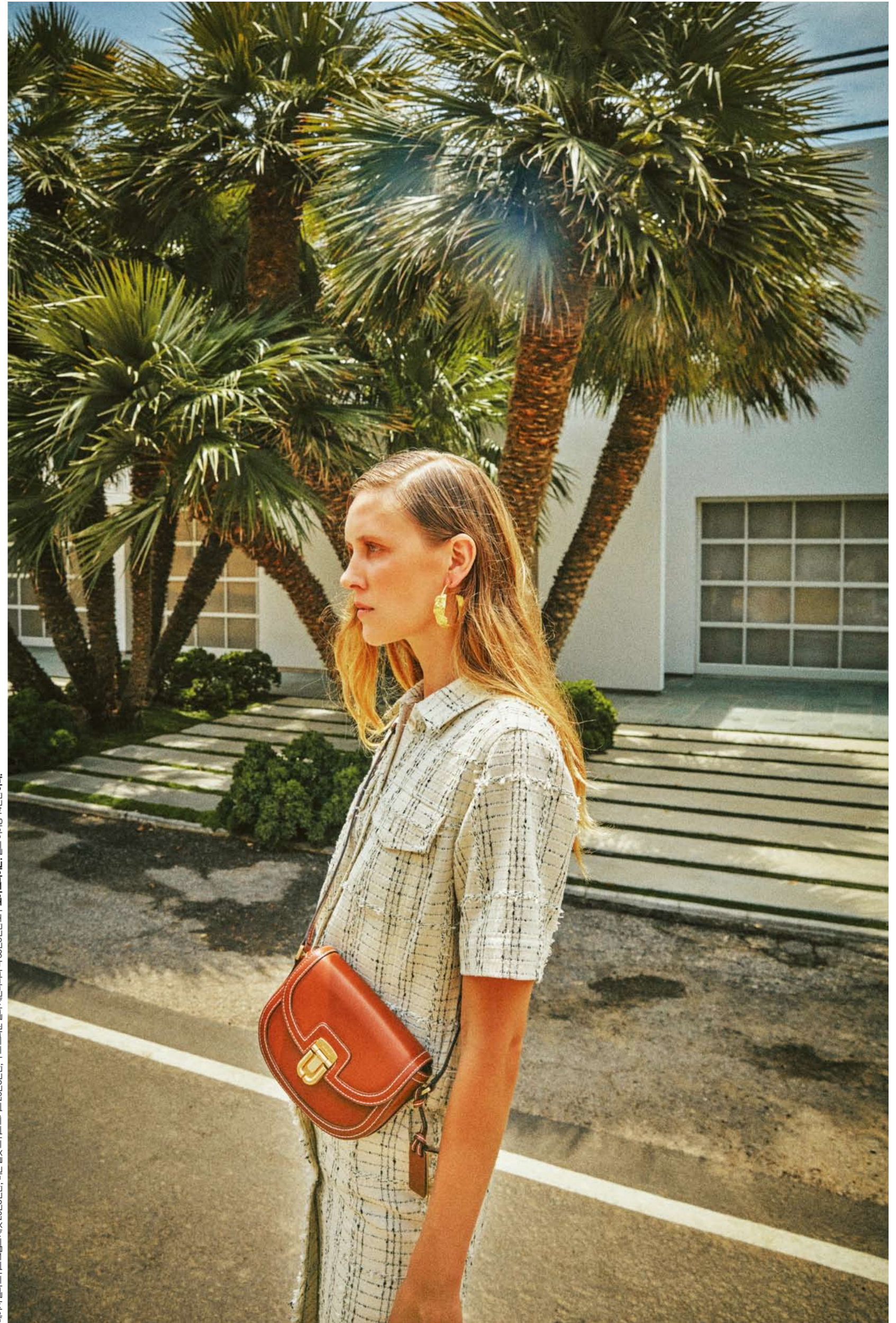
5

# Island Fever

지금 가장 달랠려고 싶은 그곳에서, 2022 서머 리조트 룩 프리뷰.  
photographed by jung ji eun



플루이드 드림 소재의 블랙 드레스  
299,000원 보타가 베니니,  
엑스텐션 화이트 컬러 선글라스  
299,000원 슈룸마르니



베이지 컬러 투윙트 크롭트 299,000원, 비넬 슬릿 투윙트 스카프 299,000원, 우드 브라운 컬러 세컨디피티 백 339,000원 모두 조이 그레이스, 플루이드 이베링 1,400원 아니





핑크 컬러의 세이프티 샌들, 핑크 코튼 나트 톱, 핑크 코튼 가죽 미장 슈클이쁘니, 스키이트 (개) 그린 컬러 샌들 24만9천원 슈클이쁘니, 레드 미들 원색 네트리스 27만9천원 포터에이브 미스트, 인더민 레드 컬러 아이들 99만8천원 아니.



오버사이즈 퍼플 셔츠 3백70만원,  
그린 컬러 쇼츠 1백60만원 모두  
발렌티노, 스키이트 저지 퍼플 컬러  
샌들 24만9천원 슈클이쁘니, 그레이스  
멀티 네트리스 28만원 러브 미 스타터.



블루 컬러 버튼다운 슬립 드레스  
 29,900원 화이트 세컨드피피 백  
 33,900원 모두 조이 크라이스,  
 박후프 이어링 22,000원 1064 스튜디오.



올 시즌 소재인 화이트 플러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메랄스, 핑키니 블루 그린 컬러 선들 27,800원 슈롱미오니, 진주 체인 디노 펜던트 나르시스 34,000원 남매성, 플러시 무드 진주 디퍼시스 66,700원 라보 미온스터.



크림 컬러의 이 벨룩 드레스 220188원, 블랙 컬러 세컨드하티 배 230188원, 블랙 컬러 제더 샌들 가격 미정 **지안베토 로시**.

인디고 블루 컬러 데님 볼륨 롱 172188원, 밴딩 크링클 세미 벨 보텀 팬츠 172188원, 내추럴 컬러 세컨드하티 배 230188원 모두 **조이 그라이스**, 카프 레드 소재의 브라운 컬러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롱 진주 이어링 6219천원 **러브 미 몬스터**.

헤어 & 메이크업 **Jenny Oh**  
 모델 **Marika Le Roux**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에르메스 02-542-6622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실버스트레 피라카모 02-3430-7654  
 발렌티노 02-2015-4653  
 조이 그라이스 080-202-2002  
 슈클미보니 1688-7667  
 지안베토 로시 02-3479-6129  
 1064 스튜디오 070-7743-1064  
 포트레이트 리포트 070-4062-4038  
 이니 010-9980-6544  
 러브 미 몬스터 02-6082-3331  
 남바랑 02-6362-0881

# editor's Pick

저자극 성분으로 케어하는 수분 가득 서머 뷰티 리추얼! photographed by jeong jin you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라랑스 NEW 립 컴포즈 오일 08 스트로베리 스테디 컬러인 클라랑스 립 오일1이 새로운 포뮬러와 패키지로 업드레이드해 출시됐다. 오묘한 채형처럼 보이지만 끈적임이 없는 것이 특징. 은은하게 올라오는 컬러감은 테일리 립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손색없다. 그뿐 아니라 각질을 순삭에 잠 재워 매우 만족. 7ml 32만5천원. 문의 080-542-9052\_by 에디터 정영진

애쉬 브라이트닝 UV 스킨케어 쉐어 N SPF 50+ PA++++ 아연에도 반응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했었던 발민성, 사모양, 미주리갈 등 모든 피부에서 가장 만족스럽다. 라센더 컬러 제형이 들떠나 이질감 없이 피부에 착 달라붙어 자연스럽게 한 톤 얹어주는 느낌. 아예 피안드(선안티노자신)가 메 알콜로 외출 할 수 있을 듯하다. 90g 2만8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정영진

디올 아디트 립스틱 #Dior 8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입술을 드러내도 좋은 시기. 플로럴 립 케어 성분으로 아칸솔이 담겨 하루 종일 입술에 수분과 영양, 광택과 선명한 컬러를 공급하는 립스틱을 추천한다. 특히 시즌 메인 컬러인 Dior 8은 공작적인 레드 컬러로 얼굴 전체를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세 가지 캐시어스와 호환 및 리페도 가능하다. 3.2g 2만9천원.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정영진

버버리 뷰티 비온드 레디언스 수분감에 반하고, 식물성 포뮬라의 순한 96% 자연 유래 성분도 두 번 반한 리페도 타입 프라이머. 특히 피부에 성대한 광택을 만들어 주는 데 효과적이다. 에디터는 콧등과 광대 등 국소 부위에 하이퍼히드러팅 활용했다. 답답함이 없는 수분 로션 타입에 오일 프리 제형이라 자성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다. 30ml 7만9천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이우미

재팬서 뷰티 스킨 리스스 비아-페이즈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앤 립 스와 구차-좀 때문에 클렌징 워터로 속속 자유진 루틴 때문인지 요즘 눈과 입과 입자 기형이 진 듯한 느낌이다. 자극 없이 촉촉한 리무버를 찾던 중 만난 제품. 깨끗하고 부드러운 눈과 입술 색조 메이크업을 지워주는데, 모스와 에센셜링 클리닝 같은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에 부담을 최소화해 더욱유기까지 한다. 100ml 4만5천원.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이우미

데코르테 하이dra 클라리티 톤업 젤 클렌저 세안 후 피부가 바로 촉촉하게 마무리 되어서 만족스럽다. 순한 젤 제형이 피부 노폐물을 부드럽고 일괄하게 세정해주는 것은 물론 마치 트리트먼트를 한 듯 세안 후 피부가 더 매끈해지는 것 같다. 이를 정도 사용해도 다른 스킨케어에 방해가 없이도 피부가 한층 밝아진 듯하다. 150g 3만 7천원.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정영진

풀라이스 스킨 퍼레이드 BHA+AHA+PHA 각질 트리트먼트 듀엣은 날씨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과 유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주 7회씩 각질 제거인 이담. 이 제품은 각질 및 피부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인 BHA와 AHA, PHA를 함유 비율로 조합해 토너처럼 바르거나 핸드 데오로로 자극 없이 각질을 관리할 수 있다. 118ml 4만5천원. 문의 1661-6656\_by 에디터 정영진

나스 셉어 안티에이징 아이세도우 팔레트 여름 태양 빛에 그을린 살짝 어두운 피부 톤에 칭 어울리는 따뜻한 컬러를 담은 팔레트이다. 트루나기 시작했다. 밤에 어떤 제품으로 영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느냐가 중요한 나이. 이 제품은 독자적인 퓨어 골드 다류진 시스템이 피부에 탄탄하게 해주어 생기를 부여한다. 리저널 텍처를 좋아한다면 적극 추천한다. 함께 동봉된 토너필 마스크도 또한 유용하다. 60ml 1만9천원. 문의 02-511-6626\_by 에디터 이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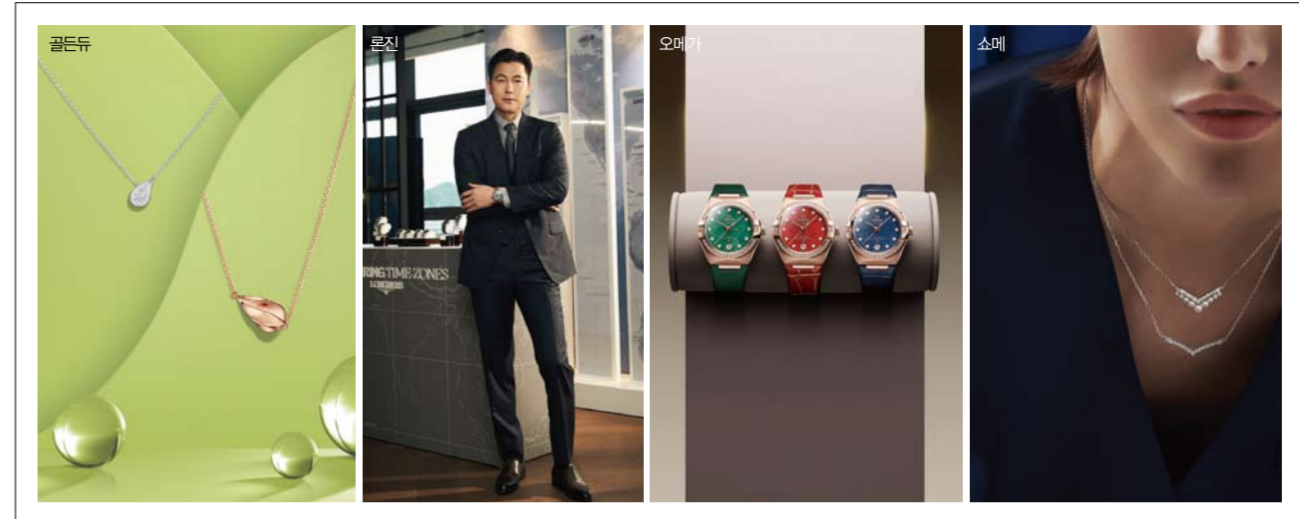
썸메이 피스크림 30 수딩에 효과적인 천연 성분 95%가 이루어진 자극기 마세할 스킨 플러. 미생에게 분사되는 미스트 제형으로 피부에 고르게 도포되어 빠르게 흡수되는 타입으로 끈적임이 없을 것이다. 물에 개어 일상생활은 물론 해링 스포츠를 즐길 때도 유용하다. 산호초에 해롭지 않은 착한 리프 프렌들리 제형 177ml 10만원. 문의 070-4370-7511\_by 에디터 이우미

라렌스 포 베드 브라스 차마 블랙 컬러 텍스처로 향미를 유발한 이 제품은 약취를 흡착하는 솜을 함유해 구취 제거에 도움을 준다. 볼소를 사용하지 않고 자갈과 샴을 성분과 자연 유래 개관활성제를 사용해 인공적으로 건조하게 구멍을 관모할 수 있다. 탄탄함 없이 개관하게 마무리하는데, 양치 직후 과음을 섭취해도 불쾌함 없이 개관된 단 맛을 바로 느낄 수 있다. 100g 9천9백원. 문의 1661-2136\_by 에디터 이우미

샤넬 리 베뉴 일루미네이션 오일 한티도 인생 오일을 만났다. 이것만 병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사하고 자연스럽게 케어할 수 있다. 샤워 후 온몸에 비린내 끈적이지 않는 가벼운 오일이 부드럽게 온몸에 흡수된다. 무엇보다도 코퍼 골드 핑클 몸 곳곳에서 생생하게 빛을 내는데, 옷에 묻지 않아 민첩 패션의 메에도 사용할 수 있다. 250ml 12만원. 문의 080-805-9638\_by 에디터 정영진



## LIFESTYLE



**올림피아 자그놀리 특별전: Life is Color** 프라다, 디올, 펜디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한 일러스트레이터 올림피아 자그놀리의 작품을 소개하는 '올림피아 자그놀리 특별전: Life is Color'전을 5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종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 올림피아 자그놀리만이 구사하는 신선한 형태와 3D 공간으로 확장되는 1백5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32-8011

**빈클리프 아벨 프리플 8-플라워 링**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 쉬는 민개한 꽃을 표현한 새로운 프리플 8-플라워 링을 공개한다. 하트 모양의 루비로 구성된 꽃 다섯 송이와 에메랄드 세팅으로 암실이 달린 꽃 세 송이가 조화를 이루며 은은하게 빛나 손길 위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문의 1668-1906

**골든듀 스윙 튜, 트윅** 골든듀에서 모닝듀 출시 20주년 기념으로 신제품 스윙 튜와 트윅을 두 목걸이를 선보인다. 스윙 튜는 골든듀의 시그니처 디자인 이슬방울이 모티브로, 심플하면서 세련된 핑크 골드 매력적이며, 트윅을 튜는 유니크한 곡선 디자인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을 더해 빛나는 우아함을 선사한다. 목걸이 길이 조절이 가능해 레이어드

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588-6576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아벤추린 29MM** 오메가의 대표적인 여성 컬렉션인 컨스텔레이션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다. 그린, 레드 또는 블루 컬러의 천연 아벤추린 스톤 다이얼과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세드나 골드 소재의 12 가지 에디션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규범에 강한 동축 시퍼라이어 크로노미터를 장착해 오메가 코-엑스컬 마스터 크로노미터 캘리버 8701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정밀한 정확도를 볼 수 있다. 문의 02-6905-3301

**론진 론진 스미릿 줄루 타임** 탄생 1백90주년을 맞이한 스위스 럭셔리 워치 브랜드 론진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소텔 캠페인에서 서울에서 올해 신제품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론진

## JEWEL & WATCH

앤베서딘 배우 정우성이 3개의 시계를 나타내는 론진 스미릿 줄루 타임 신제품을 착용해 1백 년 이상의 워치메이킹 역사를 지닌 론진의 전문성을 체감했다. 문의 02-3479-1940

**디올 워치 쥘 디올** 디올의 뮤즈, 카라 델레반과 함께 디올 주얼리의 이티스틱 디렉터 빅토르 드 카스텔라의 손길로 완성한 쥘 디올(Gem Dior) 주얼리 및 워치 컬렉션 캠페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옐로· 화이트· 핑크 골드 소재로 제작된 링, 브레이슬릿, 이어링의 기하학적인 디자인과 타이거 아이, 핑크 오パール, 이라고나이 트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컬러의 젤스톤을 더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80-0104



## BEAUTY



**리프레이 퓨어 골드 레디언스 컨센트레이트** 리프레이에서 아름다운 철수의 순간, 골든유에서 영감을 받은 퓨어 골드 레디언스 컨센트레이트를 선보인다. 피부 에너지를 영양 성분으로 보충해주는 퓨어 골드 듀얼 전 시스템으로 뛰어난 윤기와 광채를 통해 생기 가득한 빛을 부여한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퍼펙션리스트 프로 UV 울트라-라이트 쉐어 SPF 30/PA+++** 에스티 로더 퍼펙션리스트 라인 의인티에이징 성분을 그대로 함유해 광 7층의 가벼운 3중 보호막으로 피부를 가꾸는 인티에이징 선크림을 선보인다. 가볍고 선명한 젤 타입 텍스처가 수분 로션처럼 피부에 스며들며 자연스러운 물론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문의 02-6971-3212

**셀샤수 저음생 브라이트닝 라인** 셀샤수에서 탄력을 채워 밝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선사하는 복합 브라이트닝 라인을 선보인다. 피부 장벽을 가워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끌어올려주는 진세노믹스의 탄력 효과와 토날 브라이트닝 효과를 더해 피부 톤과 탄력을 동시에 케어하는 저음생제 브라이트닝 라인, 저음생제를 브라이트닝까지, 2중으로 구성된다. 문의 080-023-5454

**미중 미르자엘라 레플리카 렌더 레인 스타스 EDT** 미중 미르자엘라에서 레플리카 라인 향수 렌더 레인 스타스 EDT를 선보인다. 비가 그친 후 고요한 상태로 돌아오는 하늘, 수줍은 햇살이 비치는 봄날에서 영감을 받았다. 뿌리는 순간 촉촉하고 상쾌한 광과 무지갯빛으로 물든 하늘의 잔잔한 느낌을 선사한다. 문의 080-363-5454



**살바토레 파리가모 톰 핸들 백 다지컬 캠페인** 살바토레 파리가모에서 우아함의 대가사, 톰 핸들 백을 대체로 표현한 다지컬 광고 캠페인을 공개한다. 탈착식 사용하는 배낭에서 영감을 받은 다들 백과 미니가렛 콜로저 방식의 소파 백까지, 2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브릭 소재와 부드러운 카튼 스킨,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춰 실용성을 더했다. 문의 02-3438-6008

**발렌티노 가바너니 브이 로고 체인 백** 발렌티노 에스티 로고 체인 백을 공개한다. 1970년대를 연상시키는 둥근 호프 시프와 견고한 가죽 소재로 독특한 미학적 모티브를 담았다. 크는 스몰과 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랙과 브라운, 아이보리, 레드까지 다채로운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2061-4653

**샤넬 2022~23 크루즈 컬렉션** 모나코에서 샤넬(FENDACE) 컬렉션의 시그니처 패턴을 담은 백을 출시한다. 펜디와 베르사체의 디자인이 서로의 역할을 바꾸는 쇼핑 방식으로 선보인 펜디 컬렉션 백은 두 브랜드의 조합으로 탄생한 골드 컬러 패턴에 FF 로고를 더해 화려한 매력을 담았다. 파파부 아이코닉 마와 바게트, 펜디 선선으로 컬렉션을 구성해 새로운 무드를 연출한다. 문의 02-514-0652

## FASHION

문의: 02 3480 0104



# DIOR

*GEM DIOR COLLECTION*  
Stainless steel, diamonds and mother of pearl.

